

2019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19. 10



I · SEŌUL · U

서울케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blutouch 

제 출 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귀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19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 관한 용
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9년 10월 2일 ~ 2019년 10월 30일

2019년 10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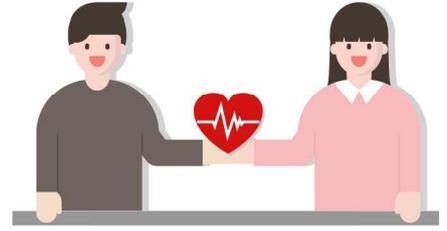
연구 책임자: 박종선(한국리서치)

연구 기관 (주)한국리서치

연구 책임자 박종선(한국리서치 수석부장)

공동 연구원 최광선(한국리서치 부장)

송한나(한국리서치 대리)



CONTENTS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1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9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19
I.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21
I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25
III.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정보접촉경로	35
IV.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45
V.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인지도	49
V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53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결과표



2019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보고서

제 1 장

조사개요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관련 서비스 이용실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격년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이용 추이를 분석해 서울시의 정신보건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지도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경험, 서비스 이용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건강 서비스 및 브랜드 인지도,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등을 6개 영역 15개 항목으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Key Research Objectives

1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파악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 받은 기관/도움 받지 않은 이유

2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파악

- 정신질환자 수용도

3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및 브랜드 인지도 파악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 블루터치 인지도 및 인지경로

4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파악

-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II. 조사 내용

차원	내용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신체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정신건강관련 기관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보접촉경로	정신질환자 수용도 1)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2)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3)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4)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
서울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인지도	블루터치 인지도
	블루터치 인지경로
서울시민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III.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집방법	2019년 8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함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컴퓨터 및 모바일을 이용한 웹조사 (CAWI :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MI : Computer Assisted Mobile Interview)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
조사기간	2019년 10월 11일 ~ 10월 21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IV.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자	(495)	49.5
	여자	(505)	50.5
연령	15-19세	(63)	6.3
	20대	(204)	20.4
	30대	(205)	20.5
	40대	(219)	21.9
	50대	(215)	21.5
	60-64세	(94)	9.4
	거주권역	도심권	(56)
	동북권	(315)	31.5
	서북권	(123)	12.3
	서남권	(296)	29.6
	동남권	(210)	21.0
학력	고졸 이하	(214)	21.4
	전문대학 졸업	(137)	13.7
	대졸 이상	(649)	64.9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2
	자영업자	(51)	5.1
	판매/영업/서비스직	(64)	6.4
	노무/운송/기능직	(33)	3.3
	사무직	(357)	35.7
	관리/전문직	(120)	12.0
	전업주부	(122)	12.2
	학생	(115)	11.5
	무직/은퇴/기타	(137)	13.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2.5
	100-199만원	(56)	5.6
	200-299만원	(136)	13.6
	300-399만원	(144)	14.4
	400-499만원	(186)	18.6
	500-599만원	(153)	15.3
	600-699만원	(99)	9.9
	700만원 이상	(201)	20.1
경제수준	상	(65)	6.5
	중	(702)	70.2
	하	(234)	23.4
혼인상태	미혼	(419)	41.9
	기혼	(545)	54.5
	기타	(36)	3.6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65.8
	보통	(267)	26.7
	좋지 않은 편	(75)	7.5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48.9
	보통	(369)	36.9
	좋지 않은 편	(143)	14.3

일 러 두 기

- 본 보고서의 데이터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응답 사례 수가 작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 2019년 조사 방법이 웹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 이전 자료와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시계열 자료 해석 시 유의해야 함.
- 보고서의 내용 중 정성적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설문지 응답 항목의 순서와 별도로 빈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정렬하여 편집하였음.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I.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1. 정신적 건강상태

- ▶ 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65.8%로,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자가 측정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표 2-1-1〉 정신적 건강상태

(Base: 전체,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서울 시민	19.5	46.3	26.7	7.0	0.5

2. 신체적 건강상태

- ▶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48.9%로,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자가 측정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표 2-1-2〉 신체적 건강상태

(Base: 전체,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서울 시민	8.9	40.0	36.9	13.6	0.7

I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응답 비율이 36.2%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30.4%),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5.2%),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24.9%),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24.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5.7%임.

〈표 2-2-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자제할 수 없는 분노표출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자살 생각	도박, 게임, 스마트폰, 알코올, 약물 등 중독문제	재난, 사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기타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
서울 시민	36.2	30.4	25.2	24.9	24.7	17.8	16.0	9.2	5.9	4.7	3.2	0.2	35.7

- ▶ 특히, 지난 1년간 ‘재난, 사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스트레스 관련 심리상담’이라는 응답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의 대처방법으로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52.1%로 가장 높으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33.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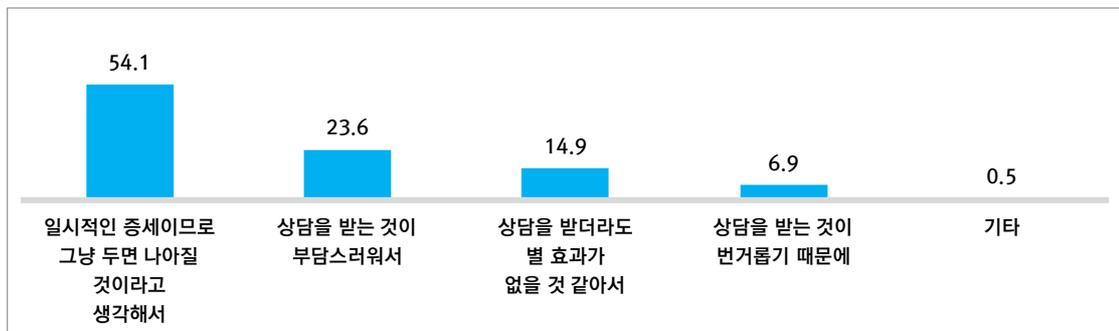
〈표 2-2-2〉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	정신과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음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	정신건강 의학과 외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음	기타
서울 시민	52.1	33.0	14.4	8.8	6.9	1.1

〈그림 2-2-1〉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Base: 정신질환 스스로 해결, N=330, 단위: %)



- ▶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 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54.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외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이라는 응답 비율이 55.7%로 가장 높음.

Ⅲ.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보접촉경로

1. 정신질환자 수용도

- ▶ 정신질환자 수용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이 93.6%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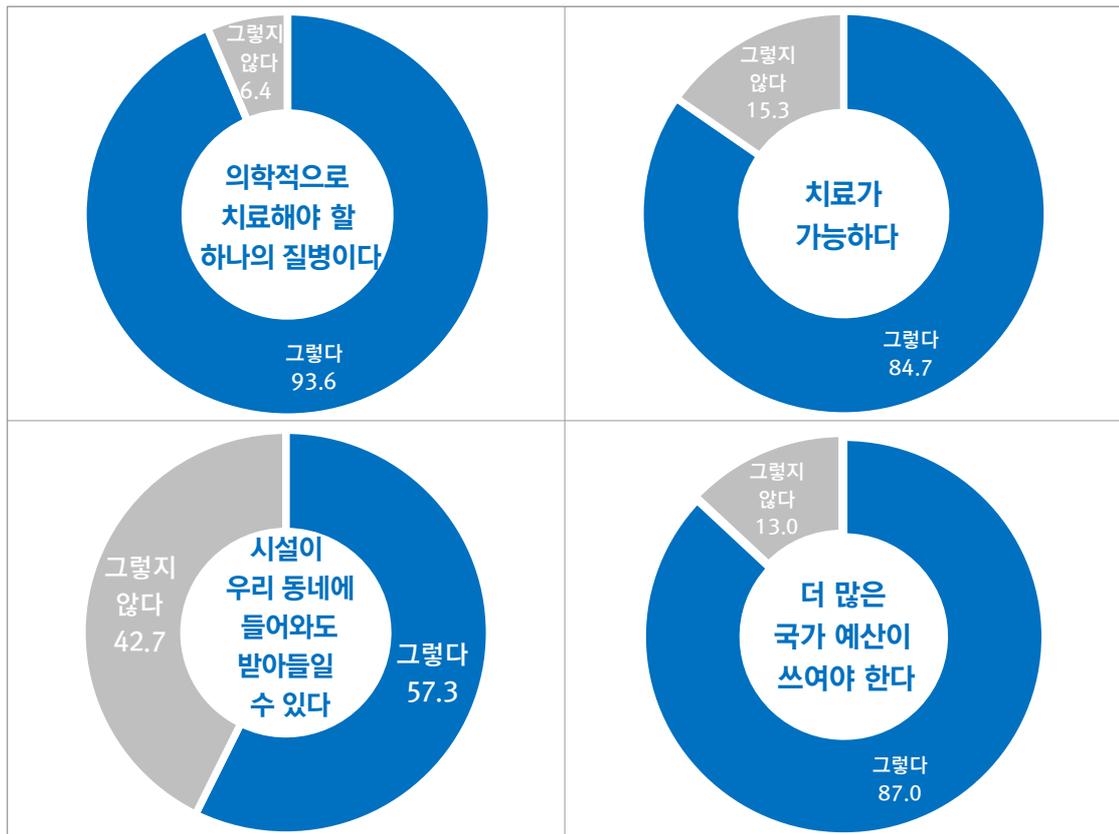
〈표 2-3-1〉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단위: %)

구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46.9	46.8	5.5	0.8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23.2	61.5	14.4	0.9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14.3	43.0	35.3	7.3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	30.6	56.4	12.2	0.8

〈그림 2-3-1〉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단위: %)



2.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

- ▶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로 ‘인터넷(SNS, 블로그 등)’이라는 응답 비율이 6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TV’(62.1%), ‘가족 및 지인’(22.8%)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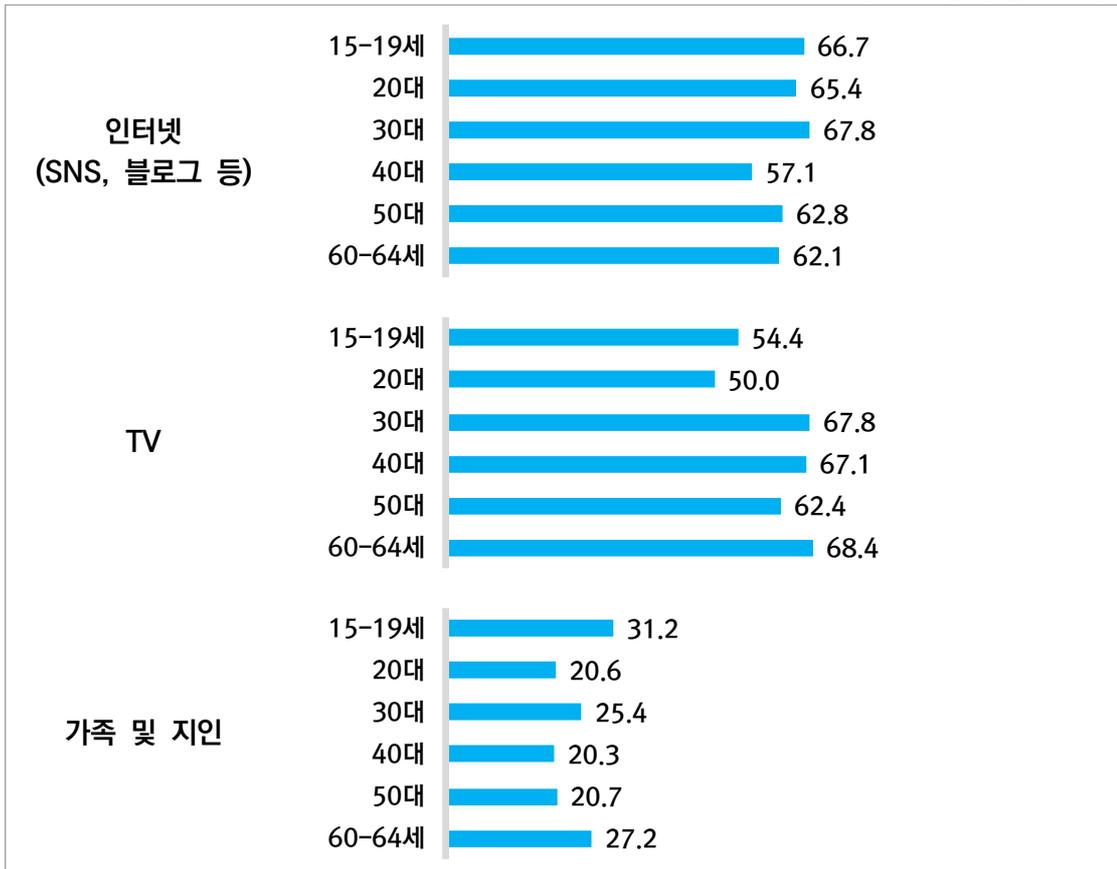
〈표 2-3-2〉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인터넷 (SNS, 블로그 등)	TV	가족 및 지인	서적	병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소나 정신건강 복지센터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서울 시민	63.3	62.1	22.8	17.9	17.3	11.0	2.7

〈그림 2-3-2〉 연령별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 응답 비율

(Base: 전체, 단위: %)



IV.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 ▶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 25개 지역구 내 보건소나 위탁 센터로 운영되며 서울 시민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예방,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활을 돕고 서울시의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인지’(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한다는 응답 비율은 60.0%인 반면, ‘비인지’ (전혀 모른다) 응답 비율은 40.0%임.

〈표 2-4-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Base: 전체, 단위: %)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서울 시민	3.8	19.8	36.3	40.0

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 ▶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스트레스, 우울, 아동·청소년, 각종 중독, 위기개입 등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향후 본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 의향이 있다’(꼭 이용하고 싶다 +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은 73.7%이며, 특히 ‘꼭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10.6%임.

〈표 2-4-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Base: 전체, 단위: %)

구분	꼭 이용하고 싶다	이용할 것 같다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서울 시민	10.6	63.1	23.7	2.7

V.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인지도

1. 블루터치 인지도

- ▶ 서울시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결핍되어 가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블루터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음. 이러한 서울시의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8%인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92.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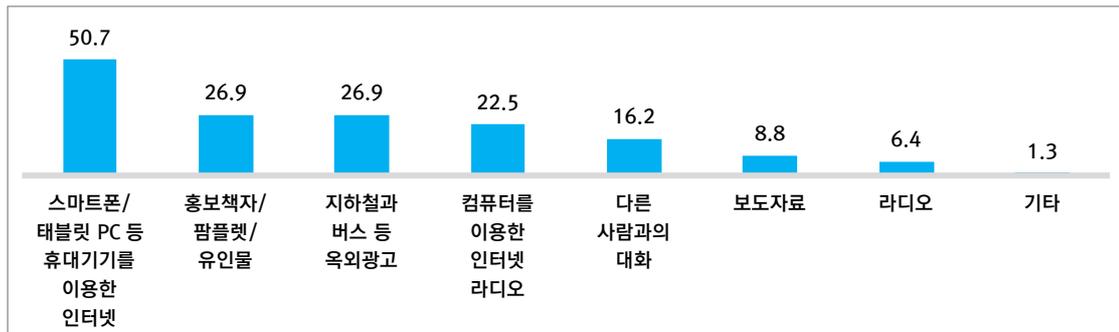
〈표 2-5-1〉 블루터치 인지도

(Base: 전체, 단위: %)

구분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서울 시민	7.8	92.2

〈그림 2-5-1〉 블루터치 인지경로(복수응답)

(Base: 블루터치 인지자, N=78, 단위: %)



- ▶ 블루터치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인지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홍보책자/팜플렛/유인물’ 및 ‘지하철과 버스 등 옥외광고’(각각 26.9%),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2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2〉 블루터치 인지경로(복수응답)

(Base: 블루터치 인지자, 단위: %)

구분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책자/팜플렛/유인물	지하철과 버스 등 옥외광고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보도자료	라디오	기타
서울 시민	50.7	26.9	26.9	22.5	16.2	8.8	6.4	1.3

V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 치료비,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쉽게 제공 되도록 하는 일'(42.1%)이라고 응답함.

〈표 2-6-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Base: 전체, 단위: %)

구분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 치료비,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쉽게 제공 되도록 하는 일	스스로 정신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 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이나 정신건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음악회, 공연 등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일	정신건강 정보를 얻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시민강좌를 개최하는 일	기타
서울 시민	42.1	22.4	19.0	10.7	5.5	0.3

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 ▶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정신질환 초기에 병원, 센터 등 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 또는 상담을 받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자가 서울 시민 10명 중 약 5명으로, 응답비율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Base: 전체, 단위: %)

구분	정신질환 초기에 병원, 센터 등 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 또는 상담을 받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파악해 도움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정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인권이 보호받도록 직업,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나 또는 이웃에게 정신건강에 관한 위급상황이 생긴 경우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주택을 제공, 지원하는 정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
서울 시민	49.0	21.9	10.3	9.1	5.4	4.3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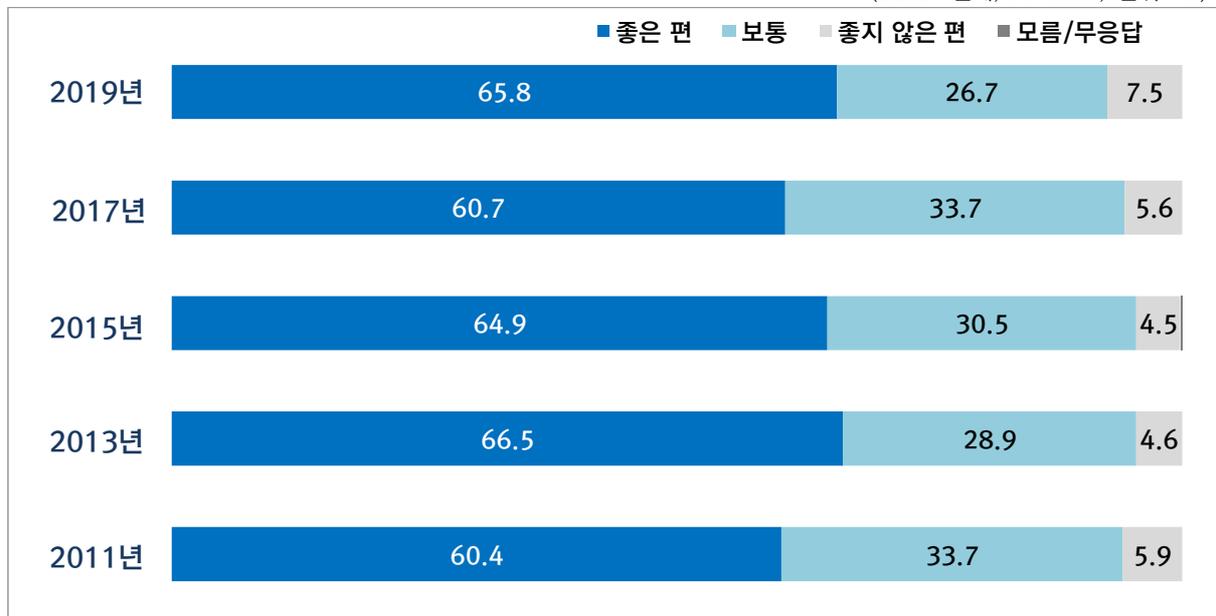
I.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1. 정신적 건강상태

문1] 귀하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1-1〉 정신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Base: 전체, N=1000, 단위: %)



🔍 전체

- ▶ 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65.8%인 반면, '나쁘다'(매우 나쁘다 + 대체로 나쁜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7.5%임.
- ▶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자가 측정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 정신적 건강상태는 2011년 대비 2013년에 소폭 증가 후, 2017년까지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 응답비율은 65.8%로 2017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5.8%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67.1%), 60-64세(78.0%), 동남권(71.0%), 자영업자(82.8%), 가구소득 600-699만원(74.7%), 기혼(73.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1-1〉 정신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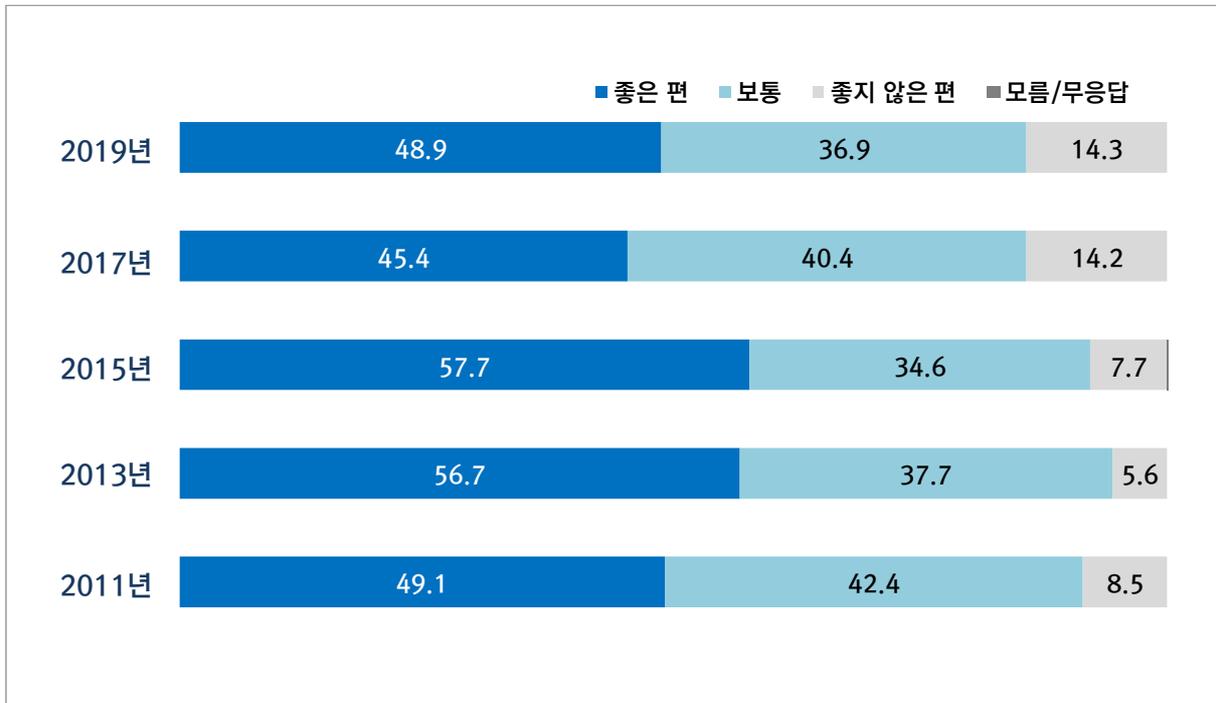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①+②	보통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④+⑤	계
■ 전체 ■	(1,000)	19.5	46.3	65.8	26.7	7.0	0.5	7.5	100.0
성별									
남자	(495)	22.2	44.9	67.1	25.3	7.2	0.4	7.6	100.0
여자	(505)	16.8	47.7	64.5	28.1	6.8	0.6	7.3	100.0
연령									
15-19세	(63)	17.9	55.1	73.0	15.7	11.3	0.0	11.3	100.0
20대	(204)	16.7	41.0	57.7	32.5	8.8	0.9	9.8	100.0
30대	(205)	16.6	40.5	57.1	32.7	9.8	0.5	10.2	100.0
40대	(219)	17.8	50.3	68.1	27.8	3.6	0.5	4.1	100.0
50대	(215)	22.9	49.0	72.0	22.1	5.5	0.5	6.0	100.0
60-64세	(94)	28.5	49.5	78.0	16.8	5.2	0.0	5.2	100.0
지역									
도심권	(56)	20.8	42.3	63.1	31.6	5.4	0.0	5.4	100.0
동북권	(315)	20.5	41.5	62.0	30.4	6.7	0.9	7.6	100.0
서북권	(123)	18.7	48.0	66.7	25.2	8.1	0.0	8.1	100.0
서남권	(296)	18.9	47.4	66.3	26.0	7.0	0.7	7.7	100.0
동남권	(210)	18.8	52.2	71.0	21.9	7.1	0.0	7.1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18.3	48.3	66.6	24.1	8.9	0.5	9.3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18.9	46.3	65.2	26.9	7.2	0.7	8.0	100.0
대졸 이상	(649)	20.0	45.7	65.7	27.6	6.3	0.5	6.7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49.2	50.8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28.8	54.0	82.8	15.3	1.9	0.0	1.9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19.9	47.6	67.5	26.4	6.1	0.0	6.1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9.0	54.7	63.7	33.3	3.0	0.0	3.0	100.0
사무직	(357)	17.6	43.2	60.8	32.0	6.7	0.6	7.2	100.0
관리/전문직	(120)	26.5	51.1	77.6	19.9	2.5	0.0	2.5	100.0
전업주부	(122)	23.3	48.0	71.4	21.3	6.5	0.8	7.3	100.0
학생	(115)	17.5	45.5	63.0	23.2	12.0	1.7	13.7	100.0
무직/은퇴/기타	(137)	14.7	44.1	58.7	30.1	11.2	0.0	11.2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15.5	29.3	44.7	39.7	15.6	0.0	15.6	100.0
100-199만원	(56)	19.2	43.5	62.6	18.4	17.2	1.7	19.0	100.0
200-299만원	(136)	20.6	43.0	63.7	29.7	5.9	0.7	6.6	100.0
300-399만원	(144)	15.4	44.2	59.6	31.1	8.6	0.7	9.3	100.0
400-499만원	(186)	16.6	47.6	64.2	32.1	3.8	0.0	3.8	100.0
500-599만원	(153)	22.7	48.2	70.9	22.6	6.5	0.0	6.5	100.0
600-699만원	(99)	24.9	49.8	74.7	20.4	4.9	0.0	4.9	100.0
700만원 이상	(201)	19.6	48.8	68.4	23.6	7.0	1.0	7.9	100.0
경제수준									
상	(65)	37.2	41.0	78.2	17.2	1.5	3.0	4.5	100.0
중	(702)	19.0	48.8	67.9	26.9	5.3	0.0	5.3	100.0
하	(234)	15.8	40.4	56.2	29.0	13.6	1.3	14.9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14.9	41.3	56.1	32.4	11.0	0.5	11.4	100.0
기혼	(545)	22.6	50.3	73.0	22.7	3.8	0.5	4.4	100.0
기타	(36)	25.0	44.6	69.6	22.2	8.1	0.0	8.1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29.6	70.4	100.0	0.0	0.0	0.0	0.0	100.0
보통	(267)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좋지 않은 편	(75)	0.0	0.0	0.0	0.0	93.4	6.6	10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33.8	57.9	91.8	7.0	1.2	0.0	1.2	100.0
보통	(369)	6.2	40.9	47.2	47.8	5.0	0.0	5.0	100.0
좋지 않은 편	(143)	4.3	20.6	24.9	39.9	31.7	3.4	35.1	100.0

2. 신체적 건강상태

문2]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1-2〉 신체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Base: 전체, N=1000, 단위: %)



🔍 전체

- ▶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48.9%인 반면, ‘나쁘다’(매우 나쁘다 + 대체로 나쁜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14.3%임.
- ▶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자가 측정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 응답비율은 2015년까지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그 비율이 대폭 감소 후, 2019년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분석됨. 2019년 조사에서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 응답비율은 48.9%로, 2017년 대비 3.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8.9%로 학력 및 경제수준, 정신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54.8%), 60-64세(53.8%), 도심권(58.1%), 관리/전문직(56.0%), 가구소득 500-599만원(59.1%), 기혼(54.1%)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1-2〉 신체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①+②	보통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④+⑤	계
■ 전체 ■		(1,000)	8.9	40.0	48.9	36.9	13.6	0.7	14.3	100.0
성별	남자	(495)	11.4	43.4	54.8	32.4	12.4	0.4	12.8	100.0
	여자	(505)	6.4	36.6	43.0	41.3	14.7	1.0	15.7	100.0
연령	15-19세	(63)	16.3	31.8	48.1	36.8	15.0	0.0	15.0	100.0
	20대	(204)	14.3	34.1	48.4	34.5	16.6	0.5	17.1	100.0
	30대	(205)	8.3	38.5	46.8	34.6	17.1	1.5	18.5	100.0
	40대	(219)	6.2	39.3	45.5	44.1	9.5	0.9	10.4	100.0
	50대	(215)	6.9	45.7	52.6	35.4	11.5	0.5	12.0	100.0
	60-64세	(94)	4.3	49.6	53.8	33.7	12.4	0.0	12.4	100.0
지역	도심권	(56)	10.9	47.1	58.1	38.4	3.6	0.0	3.6	100.0
	동북권	(315)	10.1	39.8	49.9	36.5	12.3	1.3	13.6	100.0
	서북권	(123)	4.1	41.5	45.5	35.8	18.7	0.0	18.7	100.0
	서남권	(296)	8.7	38.2	47.0	36.1	15.9	1.0	16.9	100.0
	동남권	(210)	9.5	39.9	49.4	38.8	11.8	0.0	11.8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8.1	38.7	46.8	37.2	15.1	0.9	16.0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10.3	38.3	48.6	38.4	12.3	0.7	13.1	100.0
	대졸 이상	(649)	8.9	40.7	49.6	36.5	13.3	0.6	13.9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49.2	0.0	49.2	50.8	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1.9	47.9	49.9	32.7	17.4	0.0	17.4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7.7	46.0	53.7	33.9	12.4	0.0	12.4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3.1	36.5	39.5	48.3	12.1	0.0	12.1	100.0
	사무직	(357)	8.1	38.7	46.8	38.7	13.4	1.1	14.5	100.0
	관리/전문직	(120)	10.8	45.2	56.0	37.3	6.7	0.0	6.7	100.0
	전업주부	(122)	6.5	39.6	46.2	39.3	13.0	1.6	14.6	100.0
	학생	(115)	18.7	32.0	50.7	32.4	16.1	0.8	17.0	100.0
	무직/은퇴/기타	(137)	7.2	41.2	48.4	33.5	18.1	0.0	18.1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4.0	19.9	23.9	49.1	27.0	0.0	27.0
100-199만원		(56)	3.4	34.0	37.4	37.3	23.6	1.7	25.3	100.0
200-299만원		(136)	10.3	34.7	45.0	38.6	15.7	0.7	16.4	100.0
300-399만원		(144)	6.4	26.8	33.2	46.7	19.4	0.7	20.1	100.0
400-499만원		(186)	6.6	48.5	55.1	33.1	11.7	0.0	11.7	100.0
500-599만원		(153)	11.3	47.8	59.1	31.7	8.5	0.7	9.2	100.0
600-699만원		(99)	13.8	42.9	56.8	31.7	10.6	1.0	11.6	100.0
700만원 이상		(201)	9.7	41.8	51.5	37.1	10.4	1.0	11.4	100.0
경제수준	상	(65)	20.4	45.5	65.9	24.9	7.7	1.5	9.2	100.0
	중	(702)	8.5	42.2	50.8	37.2	11.8	0.3	12.1	100.0
	하	(234)	6.8	31.6	38.4	39.4	20.5	1.7	22.2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10.1	33.0	43.1	38.5	18.0	0.5	18.4	100.0
	기혼	(545)	7.2	46.8	54.1	35.2	9.8	0.9	10.7	100.0
	기타	(36)	19.6	16.7	36.3	44.4	19.3	0.0	19.3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13.3	54.8	68.1	26.5	5.4	0.0	5.4	100.0
	보통	(267)	0.4	12.3	12.8	65.9	21.3	0.0	21.3	100.0
	좋지 않은 편	(75)	0.0	8.1	8.1	24.9	57.7	9.3	67.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18.2	81.8	100.0	0.0	0.0	0.0	0.0	100.0
	보통	(369)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좋지 않은 편	(143)	0.0	0.0	0.0	0.0	95.1	4.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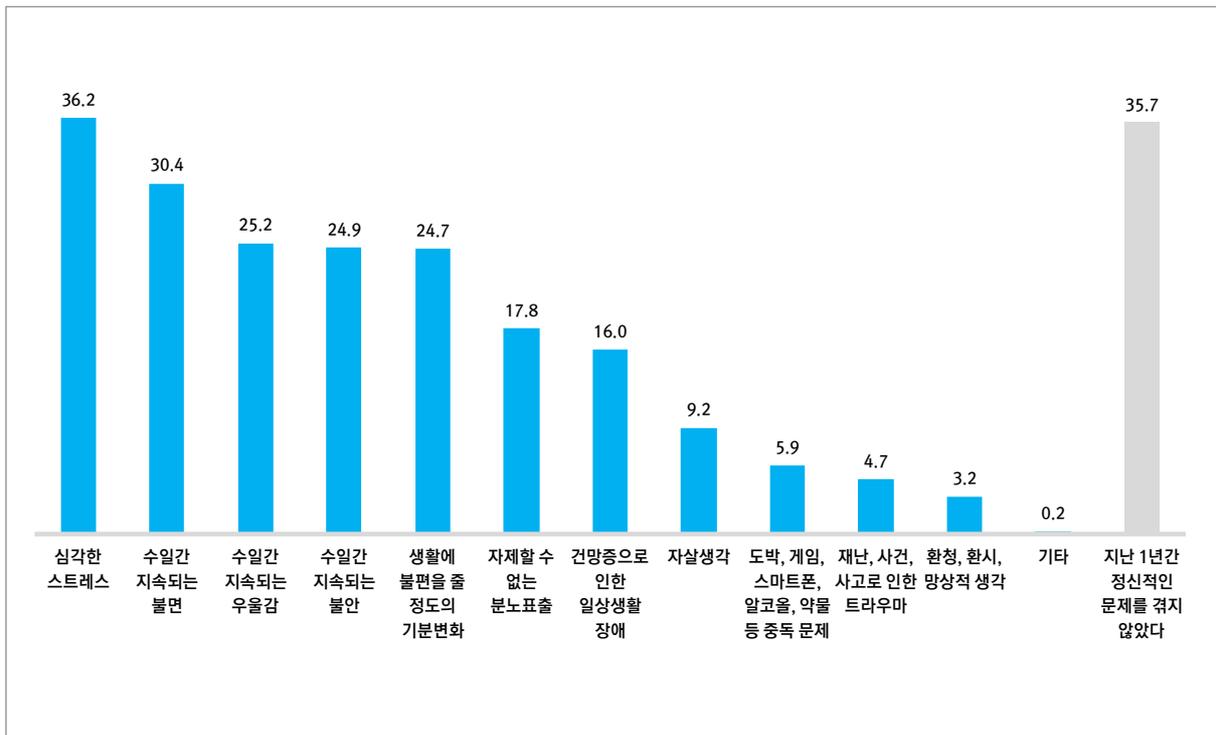
I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문3] 다음 중 지난 1년간 귀하께서 경험한 정신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하여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림 3-2-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복수응답)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응답 비율이 36.2%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30.4%),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5.2%),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24.9%),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24.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특히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5.7%임.

응답자 특성별

-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6.2%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15-19세 및 20대(각각 47.1%, 47.2%), 도심권(40.6%), 학생(48.6%), 가구소득 100-199만원(45.0%), 미혼(47.9%)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한편,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5.7%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38.9%), 60-64세(51.7%), 서북권(40.7%), 자영업자(48.1%), 기혼(44.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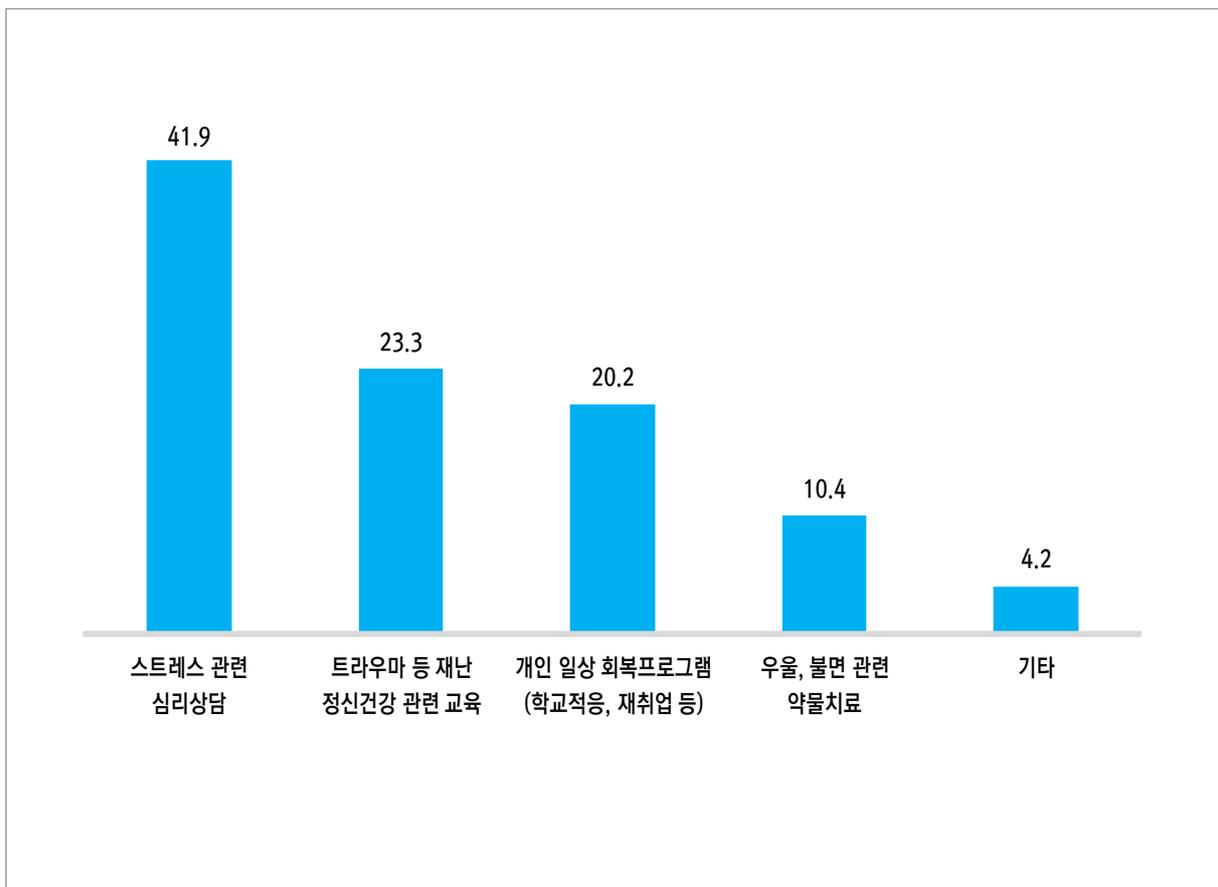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 되는 불면	수일간 지속 되는 우울감	수일간 지속 되는 불안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본변화	자제 할 수 없는 분노표출	견망중 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자살 생각	도박, 게임, 스마트폰, 알코올, 등 중독 문제	재난, 사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기타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
□ 전체 □	(1,000)	36.2	30.4	25.2	24.9	24.7	17.8	16.0	9.2	5.9	4.7	3.2	0.2	35.7
성별														
남자	(495)	35.0	27.8	19.4	22.8	21.9	15.1	13.3	7.6	6.4	4.1	3.6	0.0	38.9
여자	(505)	37.3	33.0	31.0	26.9	27.5	20.5	18.7	10.8	5.4	5.3	2.8	0.4	32.6
연령														
15-19세	(63)	47.1	28.0	38.6	41.4	31.1	16.5	20.3	14.3	8.7	2.5	3.8	0.0	24.9
20대	(204)	47.2	35.0	36.9	35.1	36.9	15.8	12.8	15.6	10.3	5.8	4.8	0.0	25.9
30대	(205)	45.4	32.2	25.4	26.3	28.8	24.4	17.6	7.3	7.8	7.3	3.4	0.5	29.3
40대	(219)	26.8	30.5	19.9	21.5	20.7	20.2	17.0	8.1	2.2	4.0	2.3	0.5	40.7
50대	(215)	29.3	28.0	19.8	17.8	17.4	15.6	16.0	6.9	4.6	4.1	2.3	0.0	42.2
60-64세	(94)	22.0	23.9	15.5	12.4	11.4	8.3	14.5	4.1	2.1	1.1	3.1	0.0	51.7
지역														
도심권	(56)	40.6	33.6	23.8	24.7	27.3	18.1	11.7	5.7	9.3	1.5	1.8	0.0	34.2
동북권	(315)	39.8	33.6	28.9	25.6	27.6	19.1	17.4	8.9	6.6	5.6	4.8	0.3	32.2
서북권	(123)	35.8	24.4	25.2	26.8	19.5	14.6	16.3	7.3	3.3	4.1	1.6	0.0	40.7
서남권	(296)	33.0	28.7	21.3	24.4	24.1	17.3	12.6	9.5	7.4	4.0	4.1	0.3	37.5
동남권	(210)	34.1	31.0	25.7	23.3	23.7	18.6	19.8	11.5	3.5	5.5	0.9	0.0	36.0
학력														
고졸 이하	(214)	35.7	29.7	27.2	28.5	21.2	16.5	21.3	10.2	11.0	5.4	4.4	0.0	32.8
전문대학 졸업	(137)	37.6	27.4	26.0	21.7	34.3	22.4	17.2	7.9	5.1	4.3	2.9	1.5	36.8
대졸 이상	(649)	36.0	31.3	24.4	24.3	23.9	17.3	14.0	9.2	4.5	4.6	2.9	0.0	36.5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49.2	0.0	49.2	49.2	49.2	0.0	50.8	49.2	49.2	0.0	49.2	0.0	0.0
자영업자	(51)	24.8	28.7	7.7	13.3	17.4	24.6	20.9	3.9	3.9	1.9	0.0	0.0	48.1
판매/영업/서비스	(64)	32.6	31.1	18.5	24.7	24.6	24.8	13.9	12.3	15.5	6.2	9.1	1.6	44.4
노무/운송/기능직	(33)	27.0	36.3	15.2	12.0	15.2	6.0	12.2	6.0	15.2	3.1	6.1	0.0	36.4
사무직	(357)	38.2	30.4	26.5	28.5	24.9	19.9	15.3	7.5	4.5	5.5	3.6	0.0	33.1
관리/전문직	(120)	29.7	24.7	14.8	12.3	19.9	10.8	10.0	9.1	4.2	2.5	1.7	0.0	44.6
전업주부	(122)	25.4	29.4	23.7	20.4	21.2	18.7	19.5	8.1	3.2	4.9	0.8	0.8	40.4
학생	(115)	48.6	33.5	38.9	35.8	37.0	12.4	12.4	13.7	7.5	4.8	4.4	0.0	23.2
무직/은퇴/기타	(137)	43.6	33.4	32.6	28.4	26.2	19.6	22.6	11.8	5.7	5.0	1.7	0.0	32.8
가구소득														
미만 100만원	(25)	33.0	31.3	33.0	17.9	24.6	13.2	13.9	21.4	0.0	3.9	3.9	0.0	39.3
100-199만원	(56)	45.0	31.5	28.0	36.0	24.6	25.2	17.7	10.6	10.8	6.3	4.1	0.0	30.0
200-299만원	(136)	37.2	35.6	33.5	30.4	30.2	15.1	18.1	15.2	6.7	3.6	6.6	0.7	30.5
300-399만원	(144)	33.8	34.0	25.6	27.2	28.3	19.7	21.7	6.9	7.5	7.6	5.6	0.0	33.7
400-499만원	(186)	38.5	31.7	22.1	27.3	19.2	16.5	15.9	6.9	6.4	3.7	2.1	0.5	37.9
500-599만원	(153)	26.2	26.4	20.0	17.1	22.1	18.7	11.5	6.5	3.2	5.2	1.3	0.0	38.9
600-699만원	(99)	43.9	31.0	29.8	24.3	25.4	22.3	12.0	11.9	7.7	5.0	2.0	0.0	26.9
700만원 이상	(201)	36.5	25.6	22.3	21.2	25.2	15.3	15.7	7.9	4.4	3.4	1.9	0.0	41.7
경제수준														
상	(65)	38.3	27.8	20.3	18.4	24.5	17.0	10.4	6.1	3.0	6.1	3.0	0.0	35.5
중	(702)	34.9	28.8	23.3	22.9	23.2	17.0	15.7	7.8	5.9	4.6	2.4	0.3	37.3
하	(234)	39.3	36.2	32.6	32.5	29.5	20.6	18.6	14.5	6.8	4.7	5.5	0.0	31.0
혼인상태														
미혼	(419)	47.9	34.5	35.7	34.7	32.8	20.2	16.6	13.3	8.7	5.8	4.1	0.0	24.9
기혼	(545)	27.9	26.4	16.5	17.3	18.5	16.7	15.3	5.6	3.6	4.2	2.7	0.4	44.0
기타	(36)	24.8	44.3	35.9	25.1	24.6	8.2	19.3	16.7	8.4	0.0	0.0	0.0	36.2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25.7	23.2	13.1	14.4	16.6	11.9	11.9	4.5	4.5	3.6	2.3	0.0	46.3
보통	(267)	47.3	41.3	39.7	37.1	32.0	25.8	20.6	14.9	7.3	4.7	3.8	0.4	19.7
줄지 않은 편	(75)	88.0	55.7	80.0	73.6	70.1	41.7	36.0	30.6	13.3	14.1	9.4	1.3	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23.4	21.9	12.7	15.0	17.8	11.6	10.3	3.2	4.2	3.0	1.6	0.0	47.5
보통	(369)	40.8	35.0	28.8	27.4	26.4	19.5	18.9	12.1	7.0	4.7	3.5	0.3	29.9
줄지 않은 편	(143)	68.0	47.7	59.0	52.1	44.1	34.9	28.3	22.4	9.0	10.4	7.9	0.7	10.3

2. 트라우마 극복에 필요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문3-1] 귀하께서는 재난, 사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시, 어떠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2-2〉 트라우마 극복에 필요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Base: 트라우마 경험자, N=47, 단위: %)



🔍 전체

- ▶ 재난, 사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시, 필요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로 ‘스트레스 관련 심리상담’이라는 응답 비율이 41.9%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트라우마 등 재난 정신건강 관련 교육’(23.3%), ‘개인 일상 회복프로그램(학교적응, 재취업 등)’(20.2%), ‘우울, 불면 관련 약물치료’(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각 항목별 사례수가 적어 응답자 특성별 분석은 생략함.

〈표 3-2-2〉 트라우마 극복에 필요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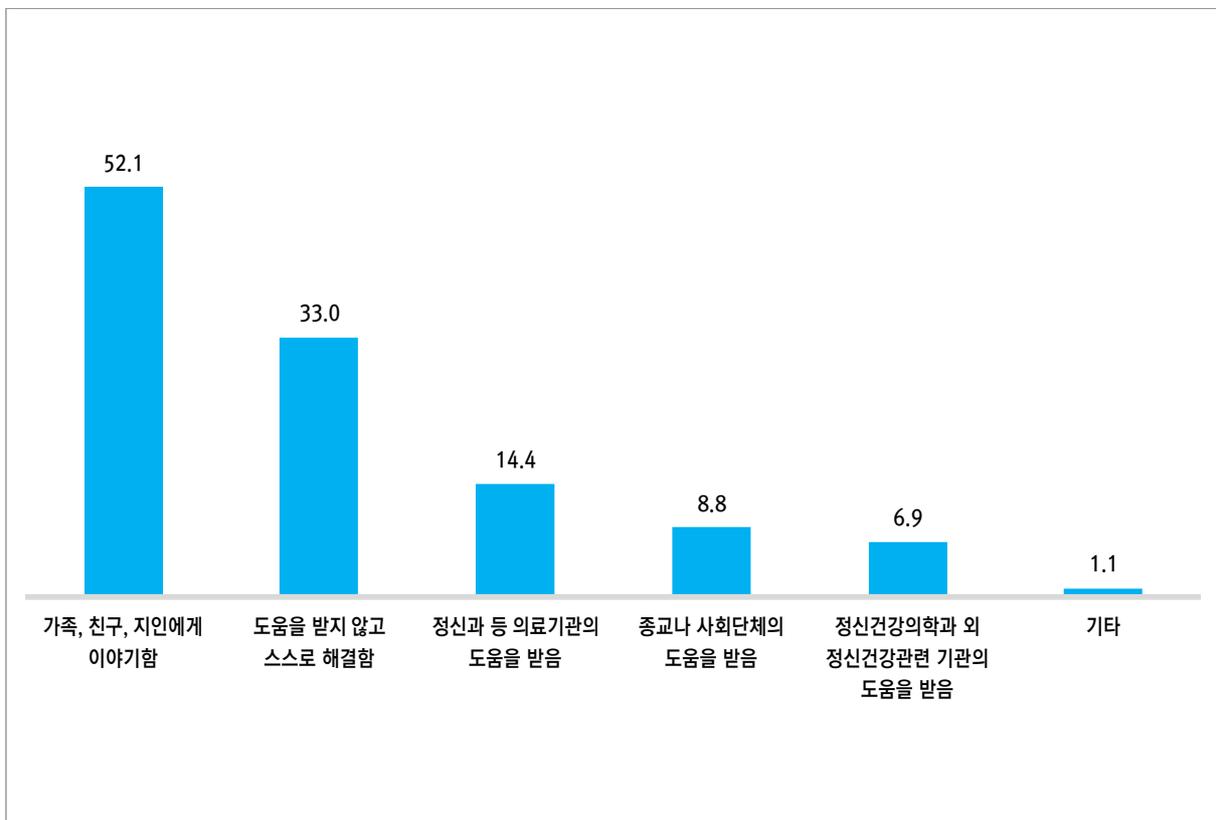
Base=트라우마 경험자	사례수 (명)	스트레스 관련 심리상담	트라우마 등 재난 정신건강 관련 교육	개인 일상 회복프로그램 (학교적응, 재취업 등)	우울, 불면 관련 약물치료	기타	계
▣ 전체 ▣	(47)	41.9	23.3	20.2	10.4	4.2	100.0
성별							
남자	(20)	38.5	14.8	27.3	14.5	4.9	100.0
여자	(27)	44.4	29.8	14.9	7.3	3.6	100.0
연령							
15-19세	(2)	0.0	0.0	100.0	0.0	0.0	100.0
20대	(12)	33.2	33.7	16.7	16.4	0.0	100.0
30대	(15)	46.7	26.7	13.3	6.7	6.7	100.0
40대	(9)	43.8	0.0	22.9	22.2	11.0	100.0
50대	(9)	44.4	33.8	21.9	0.0	0.0	100.0
60-64세	(1)	100.0	0.0	0.0	0.0	0.0	100.0
지역							
도심권	(1)	100.0	0.0	0.0	0.0	0.0	100.0
동북권	(18)	38.8	27.9	16.7	10.9	5.6	100.0
서북권	(5)	60.0	40.0	0.0	0.0	0.0	100.0
서남권	(12)	33.3	8.5	33.3	24.9	0.0	100.0
동남권	(12)	43.1	26.0	22.6	0.0	8.3	100.0
학력							
고졸 이하	(12)	25.8	43.4	13.9	16.8	0.0	100.0
전문대학 졸업	(6)	33.4	0.0	33.4	0.0	33.3	100.0
대졸 이상	(30)	49.8	20.2	20.1	9.9	0.0	100.0
직업							
자영업자	(1)	0.0	0.0	100.0	0.0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4)	49.7	50.3	0.0	0.0	0.0	100.0
노무/운송/기능직	(1)	0.0	100.0	0.0	0.0	0.0	100.0
사무직	(20)	54.7	15.1	15.1	10.0	5.1	100.0
관리/전문직	(3)	0.0	66.7	33.3	0.0	0.0	100.0
전업주부	(6)	50.3	33.5	16.2	0.0	0.0	100.0
학생	(6)	35.2	0.0	47.2	17.6	0.0	100.0
무직/은퇴/기타	(7)	29.1	14.6	14.1	28.2	14.0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	0.0	0.0	0.0	100.0	0.0	100.0
100-199 만원	(4)	55.2	0.0	44.8	0.0	0.0	100.0
200-299 만원	(5)	79.9	0.0	0.0	20.1	0.0	100.0
300-399 만원	(11)	45.6	9.1	27.1	9.1	9.1	100.0
400-499 만원	(7)	14.1	57.7	14.1	14.1	0.0	100.0
500-599 만원	(8)	37.1	38.0	12.7	0.0	12.2	100.0
600-699 만원	(5)	39.6	40.3	20.1	0.0	0.0	100.0
700만원 이상	(7)	43.0	14.5	28.5	14.0	0.0	100.0
경제수준							
상	(4)	75.4	0.0	0.0	24.6	0.0	100.0
중	(32)	30.3	27.9	29.6	9.1	3.0	100.0
하	(11)	63.7	18.3	0.0	8.9	9.1	100.0
혼인상태							
미혼	(24)	36.3	20.6	18.8	20.1	4.1	100.0
기혼	(23)	47.8	26.2	21.7	0.0	4.2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24)	29.1	33.5	29.1	8.3	0.0	100.0
보통	(13)	45.7	15.8	7.9	15.3	15.4	100.0
줄지 않은 편	(11)	66.0	9.5	15.2	9.2	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15)	26.7	46.8	26.5	0.0	0.0	100.0
보통	(17)	50.8	0.0	20.7	17.1	11.4	100.0
줄지 않은 편	(15)	46.6	26.9	13.4	13.0	0.0	100.0

3.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문4] 귀하께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대처한 방법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림 3-2-3〉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복수응답)

(Base: 전체, N=1000, 단위: %)



🔍 전체

-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의 대처방법으로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52.1%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33.0%), '정신과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음'(1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8.8%), '정신건강의학과 외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음'(6.9%)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

-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2.1%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57.3%), 15-19세(64.9%), 도심권(59.4%), 전문대학 졸업(55.6%), 자영업자(58.0%), 가구소득 500-599만원(56.5%)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한편,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3.0%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37.5%), 60-64세(40.4%), 서북권(37.4%), 판매/영업/서비스직(46.4%)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3〉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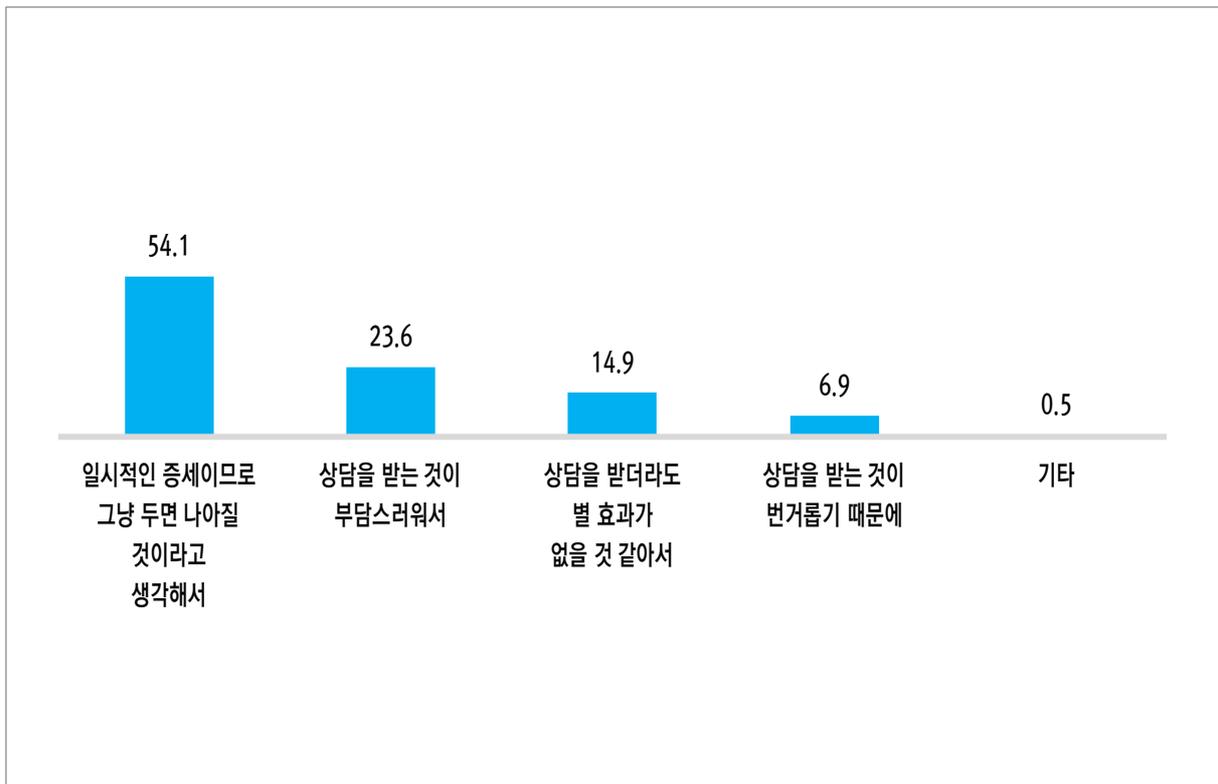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	정신과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음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	정신건강의학과 외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음	기타
□ 전체 □	(1,000)	52.1	33.0	14.4	8.8	6.9	1.1
성별							
남자	(495)	46.8	37.5	17.1	6.6	6.5	1.0
여자	(505)	57.3	28.7	11.7	10.8	7.3	1.2
연령							
15-19세	(63)	64.9	30.3	8.9	5.2	9.4	0.0
20대	(204)	49.1	36.4	17.5	5.4	9.9	1.0
30대	(205)	59.0	29.3	13.7	9.3	6.3	0.5
40대	(219)	58.3	28.3	11.6	6.7	4.9	1.8
50대	(215)	43.6	35.8	15.6	12.9	6.4	1.8
60-64세	(94)	39.8	40.4	16.6	12.7	6.1	0.0
지역							
도심권	(56)	59.4	31.5	22.0	14.1	9.4	0.0
동북권	(315)	49.1	33.9	15.1	8.2	6.6	0.9
서북권	(123)	43.9	37.4	12.2	9.8	6.5	2.4
서남권	(296)	55.0	33.3	13.0	8.8	7.0	0.0
동남권	(210)	55.3	29.2	14.5	7.5	6.9	2.3
학력							
고졸 이하	(214)	51.6	33.1	12.9	6.1	8.4	1.4
전문대학 졸업	(137)	55.6	29.8	11.7	8.1	7.1	1.4
대졸 이상	(649)	51.5	33.7	15.5	9.8	6.4	0.9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100.0	0.0	49.2	0.0	0.0	0.0
자영업자	(51)	58.0	28.5	13.6	9.7	3.9	1.9
판매/영업/서비스직	(64)	38.0	46.4	12.6	4.6	4.6	1.5
노무/운송/기능직	(33)	45.3	36.5	15.2	6.0	3.1	0.0
사무직	(357)	54.1	32.5	15.4	7.6	8.2	1.1
관리/전문직	(120)	51.2	32.4	17.4	11.5	7.3	0.0
전업주부	(122)	52.1	26.2	15.2	13.9	7.0	1.6
학생	(115)	52.4	39.8	11.0	4.6	8.6	0.0
무직/은퇴/기타	(137)	52.8	30.4	11.6	10.7	5.1	2.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48.0	36.1	8.0	11.9	3.6	0.0
100-199만원	(56)	45.4	37.0	12.3	7.0	1.7	1.8
200-299만원	(136)	52.3	32.6	15.4	7.5	9.5	0.0
300-399만원	(144)	52.0	35.7	14.3	9.0	6.8	0.7
400-499만원	(186)	50.7	35.4	12.2	8.1	7.4	0.5
500-599만원	(153)	56.5	27.2	16.4	11.2	4.1	1.3
600-699만원	(99)	46.8	37.0	15.3	8.9	7.3	2.0
700만원 이상	(201)	55.0	30.2	15.2	8.2	8.6	2.0
경제수준							
상	(65)	52.0	27.8	20.4	14.7	6.0	0.0
중	(702)	54.5	31.4	14.7	7.9	6.9	1.3
하	(234)	44.9	39.4	11.9	9.8	7.2	0.8
혼인상태							
미혼	(419)	52.7	33.4	15.0	8.4	7.9	0.5
기혼	(545)	52.5	31.8	13.9	9.6	6.3	1.6
기타	(36)	38.8	47.4	13.9	0.0	5.5	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56.9	27.8	14.7	10.1	7.0	1.2
보통	(267)	46.3	41.5	14.1	5.7	6.4	0.4
줄지 않은 편	(75)	30.5	48.3	13.3	8.0	7.9	2.6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56.4	28.3	15.9	10.3	7.7	1.2
보통	(369)	52.0	35.4	13.0	6.3	6.8	0.8
줄지 않은 편	(143)	37.6	43.1	13.1	9.8	4.8	1.4

4.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문4-2]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 3-2-4〉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Base: 정신질환 스스로 해결, N=330, 단위: %)



🔍 전체

-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그 다음으로는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3.6%),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9%), ‘상담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에 대해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4.1%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56.9%), 40대 및 60-64세(각각 60.2%, 60.5%), 서남권(58.6%), 전문대학 졸업(60.7%), 가구소득 600-699만원(67.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4〉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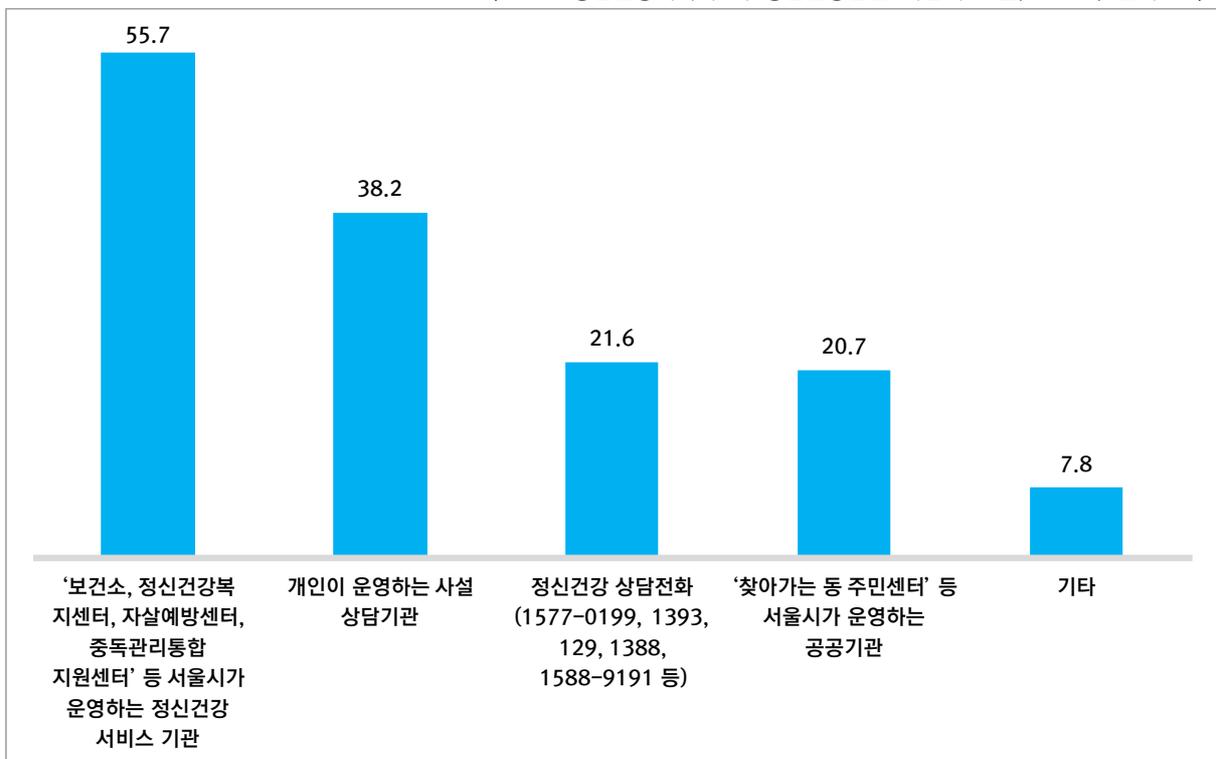
Base=정신질환 스스로 해결	사례수 (명)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상담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기타	계
▣ 전체 ▣	(330)	54.1	23.6	14.9	6.9	0.5	100.0
성별							
남자	(186)	56.9	20.9	12.8	8.5	0.9	100.0
여자	(145)	50.5	27.0	17.6	4.8	0.0	100.0
연령							
15-19세	(19)	50.7	26.8	14.1	0.0	8.4	100.0
20대	(74)	50.1	29.7	12.2	8.0	0.0	100.0
30대	(60)	50.0	28.3	13.3	8.3	0.0	100.0
40대	(62)	60.2	14.5	15.7	9.6	0.0	100.0
50대	(77)	54.0	19.2	20.5	6.4	0.0	100.0
60-64세	(38)	60.5	26.3	10.5	2.6	0.0	100.0
지역							
도심권	(18)	66.8	17.0	10.5	5.7	0.0	100.0
동북권	(107)	58.0	21.6	13.0	7.5	0.0	100.0
서북권	(46)	43.5	32.6	15.2	8.7	0.0	100.0
서남권	(99)	58.6	26.1	9.3	6.0	0.0	100.0
동남권	(61)	44.5	18.2	28.3	6.4	2.6	100.0
학력							
고졸 이하	(71)	57.2	16.9	16.6	7.0	2.3	100.0
전문대학 졸업	(41)	60.7	27.2	9.7	2.4	0.0	100.0
대졸 이상	(219)	51.9	25.1	15.3	7.7	0.0	100.0
직업							
자영업자	(15)	79.8	13.7	6.5	0.0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30)	60.0	23.4	6.6	10.0	0.0	100.0
노무/운송/기능직	(12)	58.8	16.5	16.6	8.2	0.0	100.0
사무직	(116)	50.2	27.6	14.5	7.7	0.0	100.0
관리/전문직	(39)	54.0	23.0	12.9	10.1	0.0	100.0
전업주부	(32)	53.2	24.9	21.9	0.0	0.0	100.0
학생	(46)	56.8	22.3	8.7	8.8	3.5	100.0
무직/은퇴/기타	(42)	48.3	19.1	27.8	4.8	0.0	100.0
가구소득							
미만 100만원	(9)	54.9	11.0	34.1	0.0	0.0	100.0
100-199만원	(21)	58.5	24.4	9.5	0.0	7.7	100.0
200-299만원	(44)	52.1	18.1	18.7	11.1	0.0	100.0
300-399만원	(52)	46.9	39.1	10.1	3.9	0.0	100.0
400-499만원	(66)	59.1	19.7	15.1	6.0	0.0	100.0
500-599만원	(42)	59.5	21.5	11.9	7.2	0.0	100.0
600-699만원	(37)	67.8	21.4	10.8	0.0	0.0	100.0
700만원 이상	(61)	42.6	23.0	19.6	14.7	0.0	100.0
경제수준							
상중	(18)	55.9	22.0	16.7	5.4	0.0	100.0
이하	(220)	54.0	25.3	12.3	7.7	0.7	100.0
	(92)	54.1	19.7	20.8	5.4	0.0	100.0
혼인상태							
미혼	(140)	53.4	27.2	13.3	5.0	1.1	100.0
기혼	(173)	57.1	20.6	14.3	8.0	0.0	100.0
기타	(17)	29.4	23.7	35.2	11.7	0.0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183)	62.5	17.9	13.1	6.5	0.0	100.0
보통	(111)	49.7	27.1	15.2	8.0	0.0	100.0
좋지 않은 편	(36)	25.2	41.9	23.0	5.5	4.4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138)	60.9	22.5	10.1	6.5	0.0	100.0
보통	(131)	57.8	17.6	15.8	7.6	1.2	100.0
좋지 않은 편	(61)	31.0	38.8	23.7	6.5	0.0	100.0

5.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정신건강관련 기관

문4-1] 정신건강의학과 외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도움 받은 기관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림 3-2-5〉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정신건강관련 기관(복수응답)

(Base: 정신건강의학과 외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도움, N=69, 단위: %)



전체

-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외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이라는 응답 비율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그 다음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상담기관'(38.2%),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1393, 129, 1388, 1588-9191 등)'(21.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20.7%)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정신건강관련 기관에 대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5.7%로 남자(61.7%), 기혼(68.4%)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상담기관’이라는 응답은 여자(46.9%), 미혼(41.1%)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5〉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정신건강관련 기관(복수응답)

(단위 : %)

Base= 정신건강의학과 외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도움	사례수 (명)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상담기관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1393, 129, 1388, 1588-9191 등)	‘찾아가는 등 주민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기타
▣ 전체 ▣	(69)	55.7	38.2	21.6	20.7	7.8
성별						
남자	(32)	61.7	28.2	22.0	26.2	3.1
여자	(37)	50.5	46.9	21.3	15.9	11.9
연령						
15-19세	(6)	15.2	42.5	0.0	42.3	23.7
20대	(20)	51.1	35.2	25.5	15.5	14.9
30대	(13)	61.5	46.2	15.4	30.8	7.7
40대	(11)	53.8	74.1	36.9	8.0	0.0
50대	(14)	71.4	14.3	7.3	21.6	0.0
60-64세	(6)	66.7	15.8	50.9	15.8	0.0
지역						
도심권	(5)	81.0	60.9	22.8	39.1	0.0
동북권	(21)	71.0	38.6	38.2	4.8	4.8
서북권	(8)	50.0	50.0	12.5	25.0	0.0
서남권	(21)	38.1	33.6	14.3	23.4	14.6
동남권	(15)	52.8	29.3	12.8	31.0	9.6
학력						
고졸 이하	(18)	61.0	31.7	10.6	35.8	7.8
전문대학 졸업	(10)	30.2	59.9	30.6	19.8	0.0
대졸 이상	(42)	59.5	35.8	24.3	14.5	9.6
직업						
자영업자	(2)	50.0	100.0	0.0	0.0	0.0
판매/영업/서비스직	(3)	66.4	0.0	33.6	33.6	0.0
노무/운송/기능직	(1)	100.0	0.0	0.0	100.0	0.0
사무직	(29)	52.4	55.1	28.0	21.0	6.9
관리/전문직	(9)	77.1	11.4	11.1	21.2	11.4
전업주부	(9)	67.0	10.5	21.7	21.8	0.0
학생	(10)	19.2	45.3	10.1	25.3	24.3
무직/은퇴/기타	(7)	71.3	28.7	28.7	0.0	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	100.0	0.0	0.0	0.0	0.0
100-199만원	(1)	100.0	0.0	100.0	0.0	0.0
200-299만원	(13)	54.4	37.9	32.5	9.3	7.7
300-399만원	(10)	60.5	30.3	0.0	29.6	0.0
400-499만원	(14)	71.2	36.2	35.3	13.5	7.2
500-599만원	(6)	47.0	68.2	15.9	15.4	22.2
600-699만원	(7)	16.5	72.5	13.7	0.0	13.7
700만원 이상	(17)	56.5	23.1	17.1	42.9	5.8
경제수준						
상	(4)	100.0	51.9	25.9	48.1	0.0
중	(49)	49.1	36.0	20.6	19.6	11.1
하	(17)	64.6	41.3	23.5	17.8	0.0
혼인상태						
미혼	(33)	40.0	41.1	21.5	20.0	13.3
기혼	(34)	68.4	37.5	23.0	22.6	2.9
기타	(2)	100.0	0.0	0.0	0.0	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46)	57.4	35.5	23.5	26.3	7.4
보통	(17)	58.8	41.2	18.6	12.8	11.6
좋지 않은 편	(6)	33.7	50.1	16.2	0.0	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37)	55.2	38.5	21.2	19.7	9.1
보통	(25)	60.2	44.2	20.5	23.9	0.0
좋지 않은 편	(7)	42.6	14.5	28.4	14.5	29.0

Ⅲ.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보접촉경로

1. 정신질환자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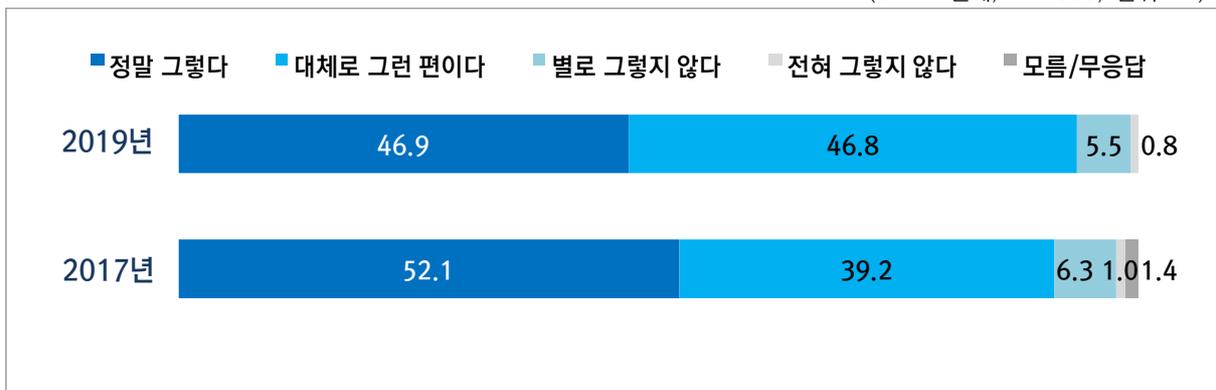
1)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문5] 다음 각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1)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그림 3-3-1〉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 2017년부터 해당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결과값 해석 유의

🔍 전체

- ▶ 정신질환자 수용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93.6%이며, 특히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46.9%로 나타남.
- ▶ 2019년 조사에서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응답비율은 93.6%로, 2017년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93.6%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94.0%), 대졸 이상(95.6%), 자영업자(98.1%), 기혼(96.6%)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3-1〉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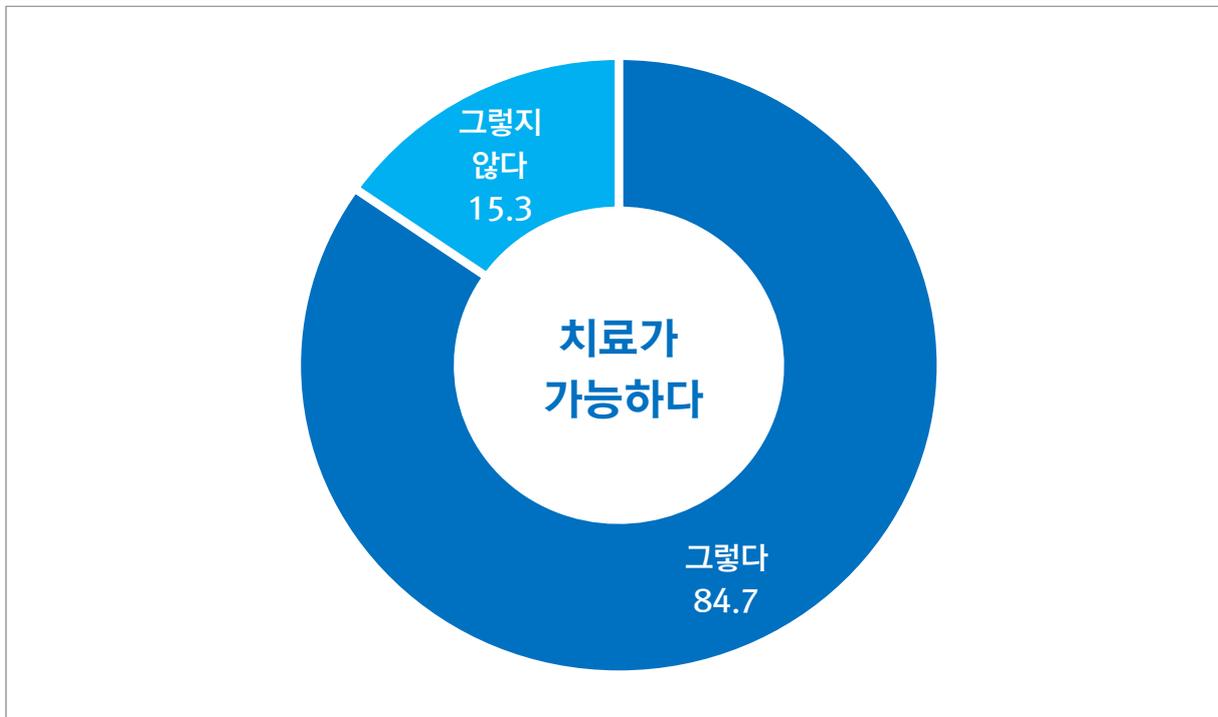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 전체 ▣	(1,000)	46.9	46.8	93.6	5.5	0.8	6.4	100.0
성별								
남자	(495)	40.8	52.5	93.2	5.8	1.0	6.8	100.0
여자	(505)	52.9	41.2	94.0	5.3	0.7	6.0	100.0
연령								
15-19세	(63)	48.0	37.2	85.1	11.4	3.5	14.9	100.0
20대	(204)	46.2	43.7	89.9	9.0	1.0	10.1	100.0
30대	(205)	50.2	44.4	94.6	4.4	1.0	5.4	100.0
40대	(219)	42.8	52.7	95.5	4.5	0.0	4.5	100.0
50대	(215)	49.5	46.3	95.9	3.7	0.5	4.1	100.0
60-64세	(94)	43.8	51.9	95.7	3.2	1.1	4.3	100.0
지역								
도심권	(56)	43.6	51.3	94.9	3.3	1.8	5.1	100.0
동북권	(315)	49.3	46.6	95.9	3.8	0.3	4.1	100.0
서북권	(123)	45.5	45.5	91.1	8.1	0.8	8.9	100.0
서남권	(296)	47.4	46.0	93.4	5.2	1.4	6.6	100.0
동남권	(210)	44.2	47.6	91.8	7.7	0.5	8.2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46.5	43.5	90.0	9.0	1.0	10.0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47.6	42.2	89.8	8.8	1.5	10.2	100.0
대졸 이상	(649)	46.9	48.8	95.6	3.7	0.6	4.4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50.8	0.0	50.8	49.2	0.0	49.2	100.0
자영업자	(51)	58.0	40.1	98.1	1.9	0.0	1.9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38.4	53.6	92.0	4.7	3.3	8.0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36.4	54.5	90.9	9.1	0.0	9.1	100.0
사무직	(357)	44.9	48.9	93.8	5.6	0.6	6.2	100.0
관리/전문직	(120)	49.6	48.0	97.6	2.4	0.0	2.4	100.0
전업주부	(122)	52.1	43.8	95.9	3.3	0.8	4.1	100.0
학생	(115)	48.0	41.7	89.7	8.4	1.9	10.3	100.0
무직/은퇴/기타	(137)	46.4	45.0	91.4	7.9	0.7	8.6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48.7	27.4	76.1	16.3	7.6	23.9	100.0
100-199만원	(56)	43.0	44.6	87.6	12.4	0.0	12.4	100.0
200-299만원	(136)	49.4	42.7	92.1	7.1	0.7	7.9	100.0
300-399만원	(144)	50.8	41.9	92.7	6.4	0.9	7.3	100.0
400-499만원	(186)	37.9	55.4	93.4	5.5	1.1	6.6	100.0
500-599만원	(153)	50.8	45.3	96.1	3.2	0.7	3.9	100.0
600-699만원	(99)	53.3	43.3	96.6	3.4	0.0	3.4	100.0
700만원 이상	(201)	45.4	50.7	96.1	3.4	0.5	3.9	100.0
경제수준								
상	(65)	40.0	52.4	92.4	5.9	1.7	7.6	100.0
중	(702)	48.1	45.7	93.8	5.5	0.7	6.2	100.0
하	(234)	45.2	48.4	93.6	5.5	0.9	6.4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45.2	45.1	90.3	8.7	1.0	9.7	100.0
기혼	(545)	48.6	48.0	96.6	3.1	0.4	3.4	100.0
기타	(36)	41.5	47.2	88.8	5.6	5.6	11.2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50.0	44.3	94.3	4.8	1.0	5.7	100.0
보통	(267)	40.7	52.2	92.8	6.4	0.7	7.2	100.0
좋지 않은 편	(75)	41.8	49.3	91.1	8.9	0.0	8.9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49.7	45.0	94.7	4.3	1.0	5.3	100.0
보통	(369)	43.4	49.7	93.0	6.3	0.6	7.0	100.0
좋지 않은 편	(143)	46.3	45.3	91.6	7.7	0.7	8.4	100.0

2)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문5] 다음 각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2)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그림 3-3-2〉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 2019년부터 해당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 전체

- ▶ 정신질환자 수용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84.7%이며, 특히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23.2%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4.7%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85.1%), 50대(89.9%), 노무/운송/기능직(91.0%), 기혼(88.1%)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3-2〉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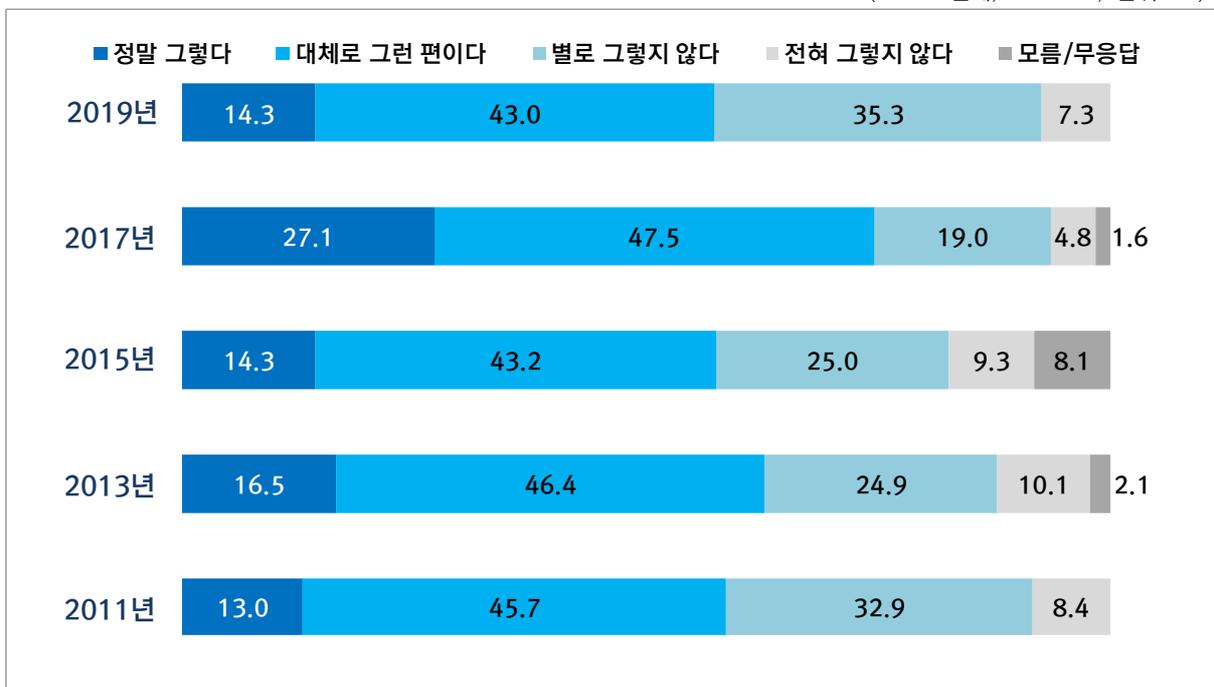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 전체 □	(1,000)	23.2	61.5	84.7	14.4	0.9	15.3	100.0
성별								
남자	(495)	22.0	62.3	84.3	14.5	1.2	15.7	100.0
여자	(505)	24.4	60.7	85.1	14.3	0.6	14.9	100.0
연령								
15-19세	(63)	32.9	52.7	85.5	13.0	1.4	14.5	100.0
20대	(204)	20.5	60.6	81.1	17.3	1.6	18.9	100.0
30대	(205)	27.8	55.1	82.9	16.1	1.0	17.1	100.0
40대	(219)	20.8	61.5	82.2	17.4	0.4	17.8	100.0
50대	(215)	21.6	68.3	89.9	9.6	0.5	10.1	100.0
60-64세	(94)	22.0	67.4	89.5	9.5	1.1	10.5	100.0
지역								
도심권	(56)	17.6	61.5	79.1	17.2	3.7	20.9	100.0
동북권	(315)	26.3	59.7	86.1	13.6	0.3	13.9	100.0
서북권	(123)	26.8	56.9	83.7	15.4	0.8	16.3	100.0
서남권	(296)	22.1	63.2	85.4	13.3	1.3	14.6	100.0
동남권	(210)	19.4	64.2	83.6	15.9	0.5	16.4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23.5	58.9	82.4	17.2	0.4	17.6	100.0
전문대학	(137)	24.7	61.4	86.1	11.6	2.3	13.9	100.0
대졸 이상	(649)	22.8	62.3	85.1	14.1	0.7	14.9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25.1	65.5	90.6	9.4	0.0	9.4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20.0	52.5	72.5	27.5	0.0	27.5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24.2	66.8	91.0	9.0	0.0	9.0	100.0
사무직	(357)	23.6	59.5	83.2	15.9	0.9	16.8	100.0
관리/전문직	(120)	16.5	70.4	86.9	11.5	1.6	13.1	100.0
전업주부	(122)	24.4	63.4	87.8	11.4	0.8	12.2	100.0
학생	(115)	30.9	55.8	86.7	12.5	0.8	13.3	100.0
무직/은퇴/기타	(137)	21.4	62.5	83.9	14.6	1.5	16.1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21.1	47.0	68.2	24.3	7.6	31.8	100.0
100-199만원	(56)	19.5	58.1	77.6	22.4	0.0	22.4	100.0
200-299만원	(136)	26.6	56.4	83.0	16.3	0.7	17.0	100.0
300-399만원	(144)	29.9	54.2	84.1	14.5	1.4	15.9	100.0
400-499만원	(186)	17.9	68.7	86.6	12.9	0.5	13.4	100.0
500-599만원	(153)	23.4	64.2	87.6	10.9	1.4	12.4	100.0
600-699만원	(99)	25.0	62.2	87.2	12.8	0.0	12.8	100.0
700만원 이상	(201)	21.4	63.7	85.1	14.5	0.4	14.9	100.0
경제수준								
상	(65)	17.0	67.8	84.8	13.9	1.3	15.2	100.0
중	(702)	24.0	62.0	85.9	13.2	0.9	14.1	100.0
하	(234)	22.7	58.3	80.9	18.2	0.9	19.1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23.0	58.0	81.1	18.0	1.0	18.9	100.0
기혼	(545)	23.4	64.7	88.1	11.4	0.5	11.9	100.0
기타	(36)	22.1	52.7	74.8	19.6	5.6	25.2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25.7	62.6	88.3	10.4	1.2	11.7	100.0
보통	(267)	17.9	62.3	80.2	19.4	0.4	19.8	100.0
좋지 않은 편	(75)	20.0	48.4	68.4	31.6	0.0	31.6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27.4	60.5	87.9	10.6	1.4	12.1	100.0
보통	(369)	19.0	64.2	83.2	16.8	0.0	16.8	100.0
좋지 않은 편	(143)	19.7	57.5	77.2	21.4	1.4	22.8	100.0

3)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문5] 다음 각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3)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 3-3-3〉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 문항 세부내용* 및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결과값 해석 유의

🔍 전체

- ▶ 정신질환자 수용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57.3%이며, 특히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14.3%로 나타남.
- ▶ 2019년 조사에서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응답비율은 57.3%로, 2017년 대비 대폭 감소함.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7.3%로, 학력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61.8%), 15-19세(64.8%), 서북권(64.2%), 노무/운송/기능직(66.7%), 가구소득 200-299만원(65.3%)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3-3〉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 전체 □	(1,000)	14.3	43.0	57.3	35.3	7.3	42.7	100.0
성별								
남자	(495)	15.9	45.9	61.8	31.9	6.3	38.2	100.0
여자	(505)	12.7	40.2	53.0	38.7	8.3	47.0	100.0
연령								
15-19세	(63)	21.3	43.5	64.8	26.8	8.4	35.2	100.0
20대	(204)	16.0	43.2	59.2	35.3	5.5	40.8	100.0
30대	(205)	15.6	40.5	56.1	32.7	11.2	43.9	100.0
40대	(219)	9.0	42.7	51.6	39.7	8.6	48.4	100.0
50대	(215)	14.6	42.7	57.3	37.7	5.0	42.7	100.0
60-64세	(94)	14.9	49.5	64.4	31.5	4.1	35.6	100.0
지역								
도심권	(56)	17.6	33.3	50.9	43.1	6.1	49.1	100.0
동북권	(315)	15.2	43.0	58.3	33.2	8.5	41.7	100.0
서북권	(123)	16.3	48.0	64.2	26.8	8.9	35.8	100.0
서남권	(296)	14.4	44.1	58.4	34.9	6.6	41.6	100.0
동남권	(210)	10.9	41.2	52.1	42.1	5.8	47.9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17.8	45.4	63.2	31.6	5.3	36.8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13.7	45.6	59.4	31.8	8.8	40.6	100.0
대졸 이상	(649)	13.3	41.7	55.0	37.3	7.7	45.0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49.2	50.8	10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11.6	48.6	60.1	34.1	5.7	39.9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13.7	41.4	55.2	41.7	3.1	44.8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18.3	48.4	66.7	30.3	3.1	33.3	100.0
사무직	(357)	13.3	43.0	56.4	33.8	9.8	43.6	100.0
관리/전문직	(120)	14.1	42.1	56.2	39.6	4.2	43.8	100.0
전업주부	(122)	11.4	37.3	48.7	40.7	10.6	51.3	100.0
학생	(115)	20.1	46.0	66.1	28.6	5.3	33.9	100.0
무직/은퇴/기타	(137)	14.6	43.6	58.2	35.7	6.1	41.8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17.6	39.2	56.7	31.7	11.6	43.3	100.0
100-199만원	(56)	16.8	45.5	62.3	32.5	5.1	37.7	100.0
200-299만원	(136)	18.0	47.4	65.3	28.1	6.6	34.7	100.0
300-399만원	(144)	17.0	46.1	63.1	31.1	5.8	36.9	100.0
400-499만원	(186)	11.3	44.1	55.4	37.5	7.1	44.6	100.0
500-599만원	(153)	12.3	46.5	58.8	34.6	6.6	41.2	100.0
600-699만원	(99)	19.9	38.0	57.9	34.1	8.0	42.1	100.0
700만원 이상	(201)	10.4	36.5	46.9	43.7	9.4	53.1	100.0
경제수준								
상	(65)	13.8	37.0	50.7	33.5	15.7	49.3	100.0
중	(702)	13.4	43.3	56.7	36.7	6.6	43.3	100.0
하	(234)	17.1	43.9	61.0	31.8	7.1	39.0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17.4	43.5	60.9	34.2	4.9	39.1	100.0
기혼	(545)	12.0	42.0	54.0	36.9	9.1	46.0	100.0
기타	(36)	13.9	52.8	66.7	24.8	8.4	33.3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15.2	43.5	58.6	34.1	7.3	41.4	100.0
보통	(267)	12.3	43.1	55.4	39.3	5.3	44.6	100.0
좋지 않은 편	(75)	14.2	38.8	53.0	31.8	15.1	47.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17.0	40.6	57.6	33.2	9.2	42.4	100.0
보통	(369)	11.0	45.7	56.8	38.7	4.6	43.2	100.0
좋지 않은 편	(143)	13.5	44.4	57.9	34.2	7.9	4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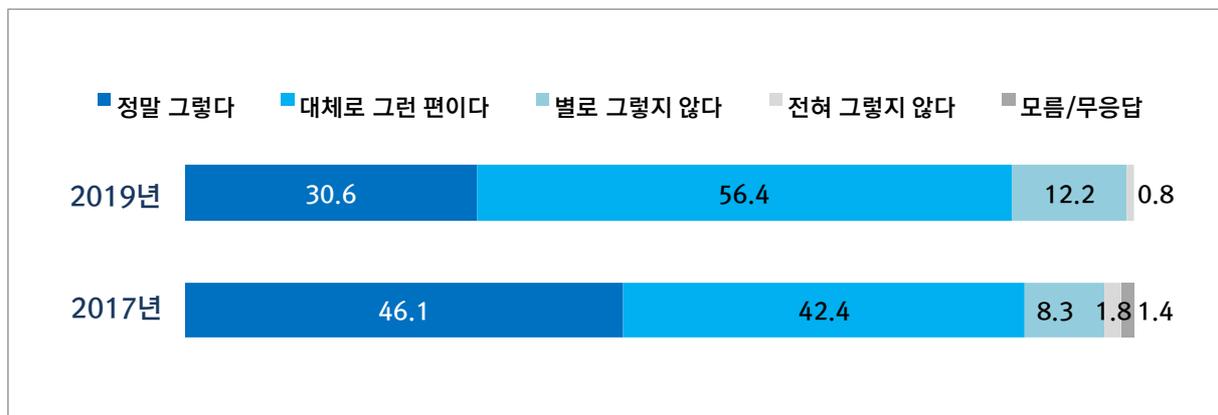
4)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

문5] 다음 각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4)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

〈그림 3-3-4〉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 2017년부터 해당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결과값 해석 유의

전체

- ▶ 정신질환자 수용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87.0%이며, 특히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30.6%로 나타남.
- ▶ 2019년 조사에서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응답비율은 87.0%로, 2017년 대비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7.0%로, 60-64세(91.5%), 서북권(88.6%), 전문대학 졸업(87.7%), 자영업자(92.3%), 가구소득 200-299만원(92.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3-4〉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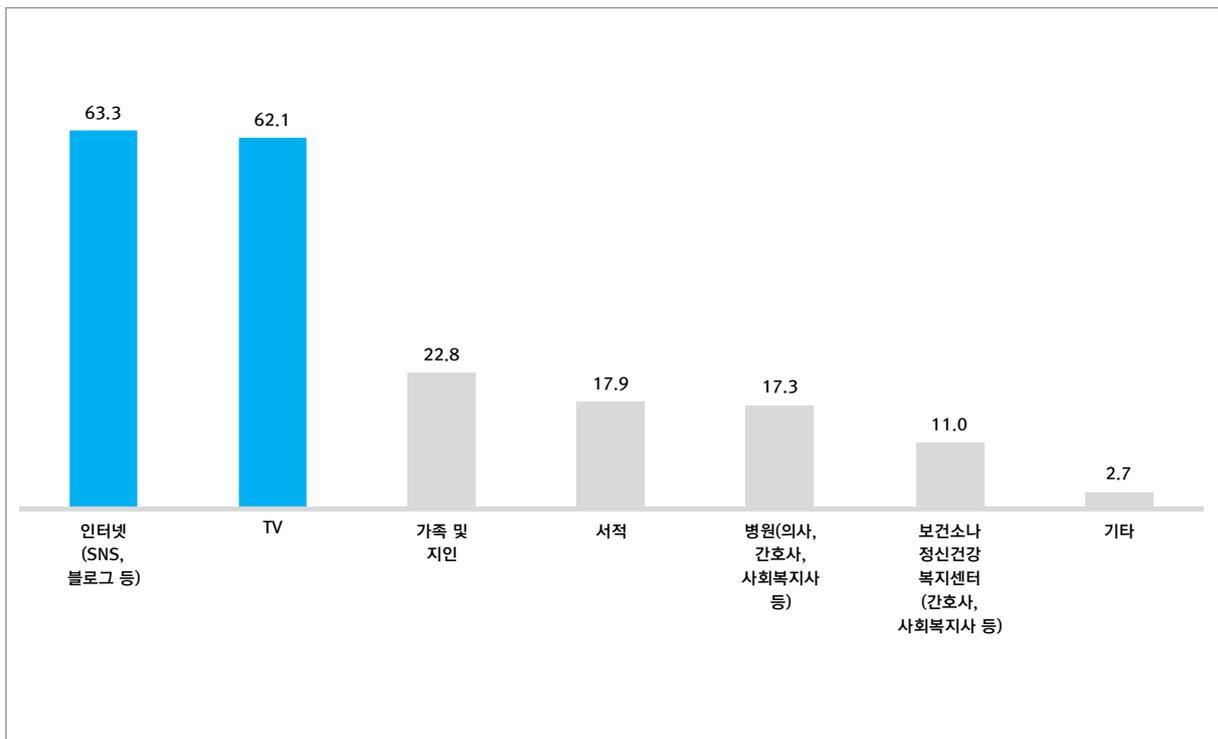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 전체 ▣	(1,000)	30.6	56.4	87.0	12.2	0.8	13.0	100.0
성별								
남자	(495)	32.3	54.8	87.1	12.1	0.8	12.9	100.0
여자	(505)	28.9	58.0	87.0	12.3	0.8	13.0	100.0
연령								
15-19세	(63)	36.1	46.2	82.3	16.3	1.4	17.7	100.0
20대	(204)	29.4	56.6	86.0	13.0	1.0	14.0	100.0
30대	(205)	32.7	53.2	85.9	12.7	1.5	14.1	100.0
40대	(219)	28.3	56.1	84.4	15.2	0.4	15.6	100.0
50대	(215)	31.1	60.1	91.2	8.8	0.0	8.8	100.0
60-64세	(94)	29.4	62.1	91.5	7.4	1.1	8.5	100.0
지역								
도심권	(56)	22.7	62.5	85.2	13.3	1.5	14.8	100.0
동북권	(315)	30.7	57.6	88.3	11.4	0.3	11.7	100.0
서북권	(123)	30.9	57.7	88.6	10.6	0.8	11.4	100.0
서남권	(296)	29.8	55.5	85.4	13.6	1.0	14.6	100.0
동남권	(210)	33.5	53.5	87.1	11.9	1.0	12.9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28.6	56.2	84.9	14.7	0.4	15.1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31.7	56.1	87.7	10.8	1.5	12.3	100.0
대졸 이상	(649)	31.0	56.5	87.6	11.7	0.8	12.4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32.9	59.4	92.3	7.7	0.0	7.7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30.8	53.7	84.5	13.8	1.7	15.5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30.2	57.6	87.9	12.1	0.0	12.1	100.0
사무직	(357)	28.6	56.8	85.4	13.5	1.1	14.6	100.0
관리/전문직	(120)	37.0	53.1	90.2	9.8	0.0	9.8	100.0
전업주부	(122)	25.2	61.0	86.1	13.1	0.8	13.9	100.0
학생	(115)	33.2	54.5	87.7	11.5	0.8	12.3	100.0
무직/은퇴/기타	(137)	32.4	55.1	87.5	11.8	0.7	12.5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13.6	62.6	76.1	16.3	7.6	23.9	100.0
100-199 만원	(56)	27.1	58.1	85.2	14.8	0.0	14.8	100.0
200-299 만원	(136)	40.1	51.9	92.0	7.3	0.7	8.0	100.0
300-399 만원	(144)	28.6	57.2	85.8	14.2	0.0	14.2	100.0
400-499 만원	(186)	25.7	59.7	85.4	13.4	1.1	14.6	100.0
500-599 만원	(153)	34.8	53.5	88.3	11.0	0.7	11.7	100.0
600-699 만원	(99)	26.7	54.9	81.6	17.6	0.9	18.4	100.0
700만원 이상	(201)	32.0	57.6	89.6	9.9	0.5	10.4	100.0
경제수준								
상	(65)	38.4	46.0	84.4	13.8	1.7	15.6	100.0
중	(702)	30.0	57.5	87.5	11.8	0.7	12.5	100.0
하	(234)	30.2	56.1	86.3	12.9	0.9	13.7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31.2	55.6	86.8	12.7	0.5	13.2	100.0
기혼	(545)	30.9	56.7	87.6	11.7	0.7	12.4	100.0
기타	(36)	19.5	60.9	80.4	14.0	5.6	19.6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31.5	55.8	87.4	11.6	1.0	12.6	100.0
보통	(267)	27.0	58.6	85.5	14.1	0.4	14.5	100.0
좋지 않은 편	(75)	35.3	53.9	89.2	10.8	0.0	10.8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32.2	54.4	86.7	11.9	1.4	13.3	100.0
보통	(369)	26.0	61.6	87.6	12.4	0.0	12.4	100.0
좋지 않은 편	(143)	37.0	49.8	86.8	12.5	0.7	13.2	100.0

2.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

문6] 귀하께서는 평소 어떠한 경로로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십니까? 해당 경로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 3-3-5〉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복수응답)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로 ‘인터넷(SNS, 블로그 등)’(63.3%)과 ‘TV’(62.1%)라는 응답한 비율이 다른 정보접촉경로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지인’(22.8%), ‘서적’(17.9%), ‘병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17.3%),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간호사, 사회복지사 등)’(11.0%) 등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

- ▶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로 ‘인터넷(SNS, 블로그 등)’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3.3%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63.6%), 서북권(69.1%), 전문대학 졸업(64.6%), 관리/전문직(69.4%), 가구소득 300-399만원(66.8%), 미혼 (65.9%)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특히,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터넷(SNS, 블로그 등)’과 ‘TV’라는 응답은 30대에서 각각 6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3-5〉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접촉경로(복수응답)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인터넷 (SNS, 블로그 등)	TV	가족 및 지인	서적	병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소나 정신건강 복지센터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 전체 ▣	(1,000)	63.3	62.1	22.8	17.9	17.3	11.0	2.7
성별								
남자	(495)	62.9	60.7	21.2	16.1	20.5	11.9	2.8
여자	(505)	63.6	63.4	24.4	19.7	14.3	10.1	2.6
연령								
15-19세	(63)	66.7	54.4	31.2	24.9	20.3	8.7	3.8
20대	(204)	65.4	50.0	20.6	19.6	24.9	14.4	3.5
30대	(205)	67.8	67.8	25.4	16.6	16.6	11.7	2.0
40대	(219)	57.1	67.1	20.3	15.7	11.7	9.9	1.8
50대	(215)	62.8	62.4	20.7	16.1	15.2	9.6	3.7
60-64세	(94)	62.1	68.4	27.2	22.0	18.7	9.3	2.1
지역								
도심권	(56)	62.1	67.9	31.6	22.8	23.7	16.2	0.0
동북권	(315)	64.3	60.1	22.8	14.3	14.2	10.7	2.5
서북권	(123)	69.1	60.2	20.3	22.0	17.9	10.6	4.1
서남권	(296)	64.3	61.7	22.6	16.4	14.9	9.8	2.7
동남권	(210)	57.2	65.2	22.2	21.8	23.5	11.9	3.1
학력								
고졸 이하	(214)	63.3	62.3	22.1	13.9	19.1	11.4	3.9
전문대학 졸업	(137)	64.6	62.8	21.7	12.2	14.6	12.2	2.2
대졸 이상	(649)	63.0	61.8	23.3	20.5	17.3	10.6	2.5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50.8	50.8	0.0	0.0	100.0	0.0	0.0
자영업자	(51)	52.1	75.2	19.4	21.4	19.6	9.5	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67.7	63.0	23.2	7.3	12.6	12.6	1.6
노무/운송/기능직	(33)	60.8	57.5	9.2	18.2	21.2	12.2	6.0
사무직	(357)	64.2	60.9	22.8	15.6	12.4	11.5	2.2
관리/전문직	(120)	69.4	62.2	15.8	19.9	25.6	11.5	1.7
전업주부	(122)	48.9	69.9	27.6	20.3	12.0	12.8	2.4
학생	(115)	66.1	53.0	26.1	20.4	28.9	8.0	2.9
무직/은퇴/기타	(137)	68.9	61.6	26.7	22.0	17.3	9.8	6.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60.3	56.0	24.6	12.0	31.3	12.0	12.4
100-199만원	(56)	55.4	66.4	7.1	20.8	22.5	14.2	1.8
200-299만원	(136)	65.8	57.9	28.5	15.7	16.7	12.8	0.7
300-399만원	(144)	66.8	62.0	18.9	15.8	7.8	13.9	4.1
400-499만원	(186)	62.2	62.5	24.7	18.1	16.6	11.2	4.3
500-599만원	(153)	61.9	62.9	21.9	17.8	14.0	10.3	0.9
600-699만원	(99)	59.4	70.0	23.1	9.7	22.0	5.0	2.0
700만원 이상	(201)	65.5	59.6	24.8	25.0	22.3	9.9	2.4
경제수준								
상	(65)	59.7	60.0	31.0	19.8	28.0	15.2	1.5
중	(702)	62.9	64.1	21.9	18.9	17.1	10.6	2.6
하	(234)	65.2	56.5	23.3	14.6	15.2	10.8	3.4
혼인상태								
미혼	(419)	65.9	58.1	22.3	20.4	19.7	11.4	3.2
기혼	(545)	61.8	66.1	23.3	16.3	15.4	10.7	2.4
기타	(36)	55.5	46.9	22.0	13.9	19.2	11.1	2.8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61.7	65.2	23.5	19.1	20.3	12.6	2.9
보통	(267)	65.5	58.1	22.0	14.9	9.7	8.7	2.3
좋지 않은 편	(75)	69.2	49.0	19.8	18.1	18.0	5.4	2.6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63.4	63.2	24.9	16.6	21.5	13.2	3.4
보통	(369)	62.2	63.6	22.0	19.3	11.9	9.0	1.9
좋지 않은 편	(143)	65.5	54.5	17.6	18.8	17.1	8.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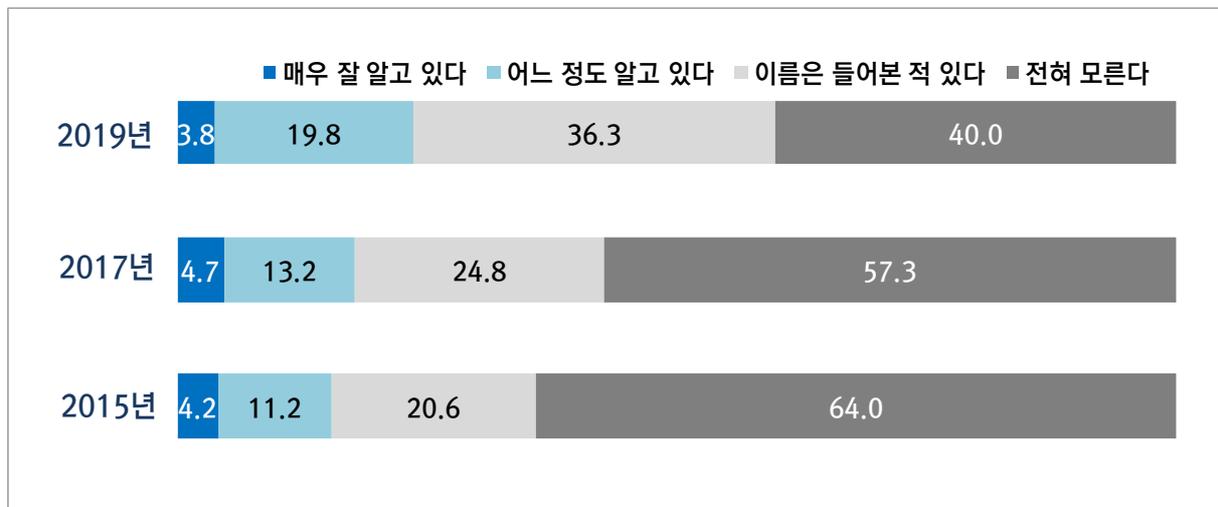
IV.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문기 귀하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를 알고 계십니까?

〈그림 3-4-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인지’(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한다는 응답 비율은 60.0%*인 반면, ‘비인지’ (전혀 모른다) 응답 비율은 40.0%임.
-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지도**는 2011년 29.3%, 2013년 28.1%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2019년 조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60.0%)가 2017년 대비 1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응답 값의 합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므로, 그래프 상 합계와 상이함.

** 2011년~2013년 조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지도’는 ‘아주 잘 안다 + 이름은 들어보았다’, ‘비인지도’는 ‘잘 모른다 + 처음 듣는 이름이다’ 문항으로 구성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인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0.0%로 학력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60-64세(74.7%), 도심권(75.1%), 자영업자(69.4%),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63.5%)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반면, ‘비인지’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0.0%로 학력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15-19세(57.1%), 서남권(44.9%), 학생(56.5%), 가구소득 100-199만원(47.4%)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4-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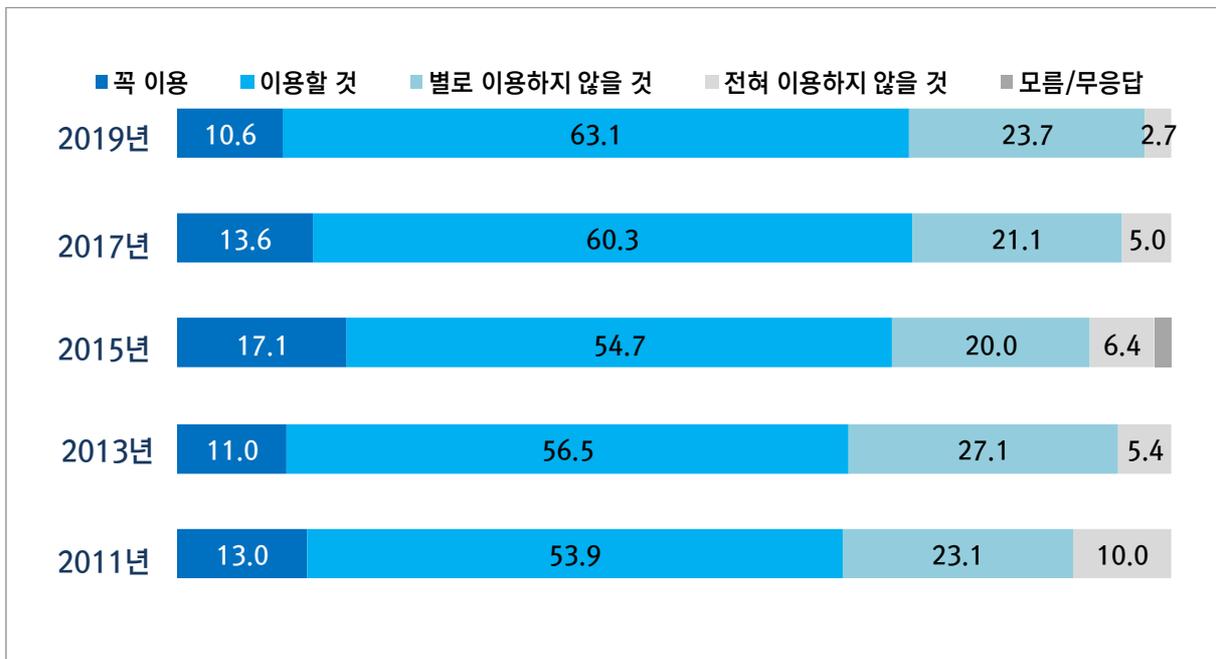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인지(①~③)	전혀 모른다	비인지(④)	계
■ 전체 ■	(1,000)	3.8	19.8	36.3	60.0	40.0	40.0	100.0
성별								
남자	(495)	3.6	18.5	38.3	60.4	39.6	39.6	100.0
여자	(505)	4.1	21.1	34.4	59.6	40.4	40.4	100.0
연령								
15-19세	(63)	0.0	12.8	30.1	42.9	57.1	57.1	100.0
20대	(204)	4.8	17.3	29.5	51.7	48.3	48.3	100.0
30대	(205)	5.4	19.5	31.7	56.6	43.4	43.4	100.0
40대	(219)	0.4	20.7	42.8	64.0	36.0	36.0	100.0
50대	(215)	4.1	23.4	38.0	65.6	34.4	34.4	100.0
60-64세	(94)	8.3	19.9	46.5	74.7	25.3	25.3	100.0
지역								
도심권	(56)	6.9	23.7	44.5	75.1	24.9	24.9	100.0
동북권	(315)	2.5	20.5	37.4	60.5	39.5	39.5	100.0
서북권	(123)	3.3	14.6	44.7	62.6	37.4	37.4	100.0
서남권	(296)	4.7	19.1	31.3	55.1	44.9	44.9	100.0
동남권	(210)	4.2	21.7	34.7	60.6	39.4	39.4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1.9	17.6	36.8	56.3	43.7	43.7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3.6	20.9	34.7	59.3	40.7	40.7	100.0
대졸 이상	(649)	4.5	20.3	36.5	61.3	38.7	38.7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49.2	50.8	10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1.9	21.0	46.4	69.4	30.6	30.6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1.6	24.9	30.4	56.8	43.2	43.2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0.0	21.3	45.5	66.8	33.2	33.2	100.0
사무직	(357)	3.6	20.8	34.4	58.7	41.3	41.3	100.0
관리/전문직	(120)	8.1	20.6	39.6	68.4	31.6	31.6	100.0
전업주부	(122)	4.0	25.2	35.7	64.9	35.1	35.1	100.0
학생	(115)	0.8	9.8	32.8	43.5	56.5	56.5	100.0
무직/은퇴/기타	(137)	5.8	16.4	38.8	61.1	38.9	38.9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0.0	15.7	35.8	51.6	48.4	48.4	100.0
100-199만원	(56)	5.1	14.4	33.1	52.6	47.4	47.4	100.0
200-299만원	(136)	5.8	22.9	30.2	58.8	41.2	41.2	100.0
300-399만원	(144)	3.5	14.5	40.1	58.0	42.0	42.0	100.0
400-499만원	(186)	1.1	18.3	42.6	62.0	38.0	38.0	100.0
500-599만원	(153)	2.6	22.5	35.5	60.6	39.4	39.4	100.0
600-699만원	(99)	3.0	25.1	30.8	58.8	41.2	41.2	100.0
700만원 이상	(201)	6.8	20.2	36.4	63.5	36.5	36.5	100.0
경제수준								
상	(65)	10.6	24.5	29.2	64.3	35.7	35.7	100.0
중	(702)	3.7	20.4	37.4	61.5	38.5	38.5	100.0
하	(234)	2.5	16.6	35.3	54.3	45.7	45.7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2.8	18.0	32.4	53.2	46.8	46.8	100.0
기혼	(545)	4.9	20.3	39.4	64.6	35.4	35.4	100.0
기타	(36)	0.0	33.5	35.9	69.4	30.6	30.6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4.6	23.1	35.6	63.4	36.6	36.6	100.0
보통	(267)	1.9	12.7	38.1	52.8	47.2	47.2	100.0
좋지 않은 편	(75)	4.0	15.8	36.0	55.9	44.1	44.1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5.0	24.5	35.2	64.7	35.3	35.3	100.0
보통	(369)	2.9	15.0	36.8	54.7	45.3	45.3	100.0
좋지 않은 편	(143)	2.1	16.1	39.0	57.2	42.8	42.8	100.0

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문8]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스트레스, 우울, 아동·청소년, 각종 중독, 위기개입 등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향후 본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림 3-4-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스트레스, 우울, 아동·청소년, 각종 중독, 위기개입 등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 의향이 있다'(꼭 이용하고 싶다 +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은 73.7%이며, 특히 '꼭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10.6%임.
-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의향'(꼭 이용하고 싶다 + 이용할 것 같다) 비율은 2011년 66.9%, 2013년 67.5%, 2015년 71.8%, 2017년 73.9%로, 지속적으로 이용의향이 상승하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이용의향이 73.7%로 2017년 대비 0.2%p 하락함.

응답자 특성별

- ▶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 의향이 있다’(꼭 이용하고 싶다 +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3.7%로 학력이 낮을수록,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60-64세(80.9%), 도심권(79.2%), 노무/운송/기능직 및 전업주부(각각 78.8%), 가구소득 400-499만원(79.1%)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반면, ‘이용 의향이 없다’(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6.3%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15-19세(31.8%), 동북권(29.8%), 학생(37.3%), 가구소득 300-399만원(35.9%), 미혼(30.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4-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꼭 이용하고 싶다	이용할 것 같다	①+②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③+④	계
■ 전체 ■	(1,000)	10.6	63.1	73.7	23.7	2.7	26.3	100.0
성별								
남자	(495)	10.4	62.7	73.1	24.1	2.8	26.9	100.0
여자	(505)	10.7	63.5	74.2	23.2	2.6	25.8	100.0
연령								
15-19세	(63)	11.9	56.3	68.2	28.8	3.0	31.8	100.0
20대	(204)	10.7	58.2	68.9	27.1	4.0	31.1	100.0
30대	(205)	13.2	61.5	74.6	22.4	2.9	25.4	100.0
40대	(219)	8.1	66.9	75.0	22.4	2.7	25.0	100.0
50대	(215)	10.1	64.2	74.3	24.3	1.4	25.7	100.0
60-64세	(94)	10.4	70.4	80.9	17.0	2.1	19.1	100.0
지역								
도심권	(56)	14.6	64.6	79.2	19.0	1.8	20.8	100.0
동북권	(315)	7.6	62.6	70.2	27.9	1.9	29.8	100.0
서북권	(123)	9.8	65.0	74.8	22.8	2.4	25.2	100.0
서남권	(296)	10.5	64.1	74.6	21.1	4.3	25.4	100.0
동남권	(210)	14.5	60.8	75.3	22.7	1.9	24.7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10.0	68.7	78.6	17.7	3.7	21.4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14.6	60.7	75.3	23.3	1.4	24.7	100.0
대졸 이상	(649)	9.9	61.8	71.7	25.7	2.6	28.3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49.2	50.8	10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3.9	73.0	76.9	23.1	0.0	23.1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10.6	63.4	74.1	22.9	3.0	25.9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3.0	75.8	78.8	21.2	0.0	21.2	100.0
사무직	(357)	10.6	61.8	72.4	24.8	2.8	27.6	100.0
관리/전문직	(120)	9.9	68.6	78.6	19.0	2.5	21.4	100.0
전업주부	(122)	13.8	65.1	78.8	18.7	2.4	21.2	100.0
학생	(115)	7.4	55.3	62.7	32.9	4.4	37.3	100.0
무직/은퇴/기타	(137)	14.4	59.7	74.1	23.0	2.9	25.9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13.6	54.5	68.0	16.4	15.6	32.0	100.0
100-199만원	(56)	9.8	63.6	73.4	22.9	3.7	26.6	100.0
200-299만원	(136)	15.0	62.3	77.2	21.3	1.5	22.8	100.0
300-399만원	(144)	10.9	53.1	64.1	31.2	4.8	35.9	100.0
400-499만원	(186)	7.9	71.1	79.1	19.8	1.1	20.9	100.0
500-599만원	(153)	10.5	68.5	79.0	19.1	1.9	21.0	100.0
600-699만원	(99)	10.9	63.8	74.7	22.3	2.9	25.3	100.0
700만원 이상	(201)	9.3	60.0	69.3	28.7	2.0	30.7	100.0
경제수준								
상	(65)	15.3	51.9	67.2	31.3	1.5	32.8	100.0
중	(702)	9.8	65.9	75.7	22.4	2.0	24.3	100.0
하	(234)	11.4	57.9	69.3	25.5	5.1	30.7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10.1	59.9	70.0	27.2	2.9	30.0	100.0
기혼	(545)	10.9	64.8	75.7	22.0	2.3	24.3	100.0
기타	(36)	11.1	75.0	86.1	8.4	5.5	13.9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11.5	64.7	76.3	21.9	1.8	23.7	100.0
보통	(267)	7.5	61.5	69.0	26.9	4.1	31.0	100.0
좋지 않은 편	(75)	13.2	54.2	67.4	27.2	5.5	32.6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11.5	63.4	74.9	22.5	2.6	25.1	100.0
보통	(369)	8.7	64.5	73.2	23.5	3.3	26.8	100.0
좋지 않은 편	(143)	12.0	58.5	70.4	28.2	1.4	2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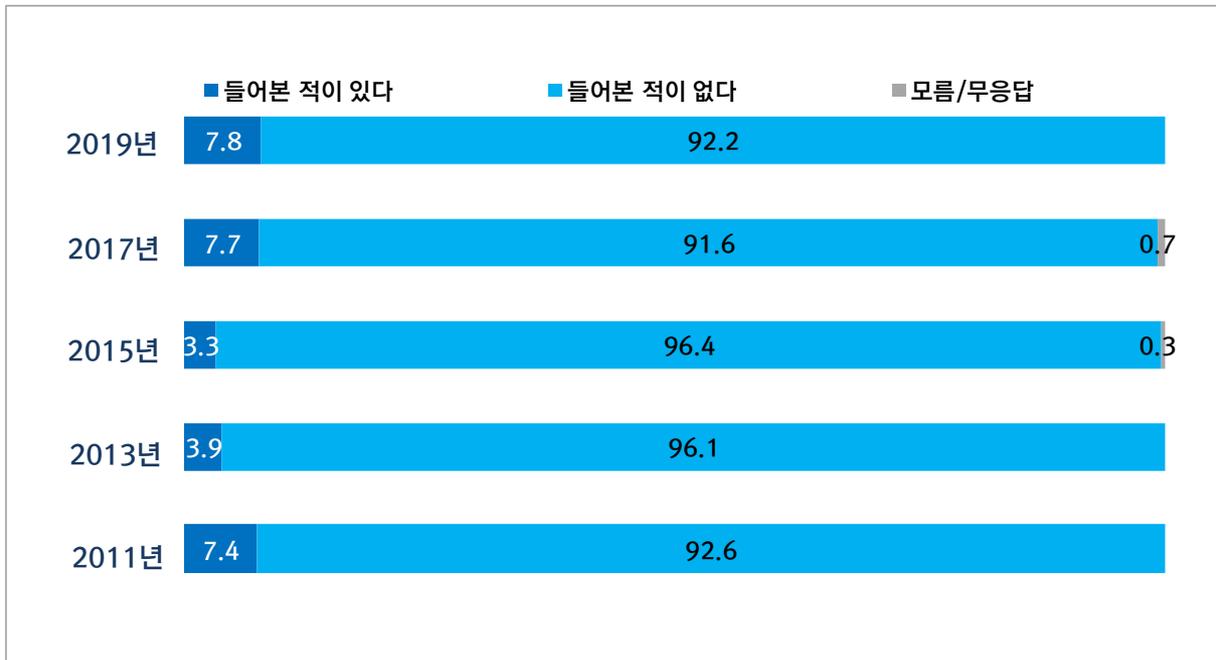
V.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인지도

1. 블루터치 인지도

문9] 서울시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결핍되어가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블루터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하나라도 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 3-5-1〉 블루터치 인지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 서울시의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8% 인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92.2%임.
- ▶ 블루터치 인지도는 2011년 7.4%, 2013년 3.9%, 2015년 3.3%로 점차 감소 후, 2017년 7.7%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조사에서도 이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비율인 7.8%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블루터치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8%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남자(9.6%), 50대(10.1%), 도심권(10.8%), 고졸 이하(8.9%), 관리/전문직(9.8%), 가구소득 100-199만원(10.7%) 등에서 비교적 높음.
- ▶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92.2%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여자(93.9%), 40대(95.6%), 서북권(96.7%), 전문대학 졸업(94.2%), 학생(95.7%), 가구소득 400-499만원(94.6%) 등에서 비교적 높음.

〈표 3-5-1〉 블루터치 인지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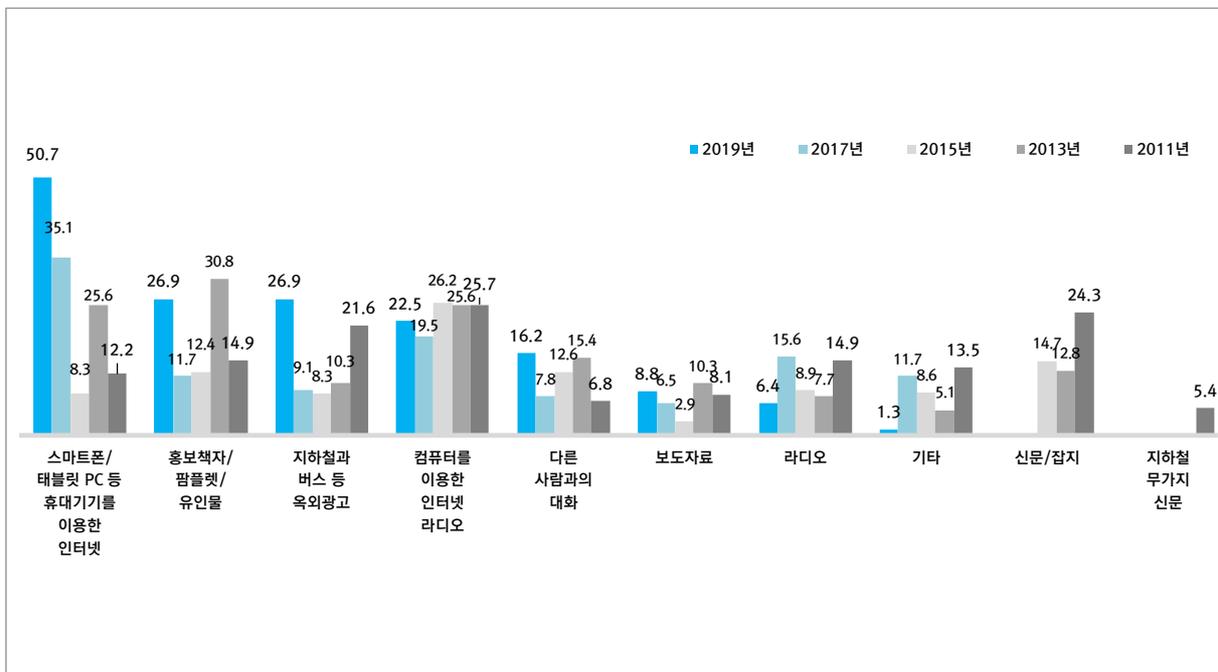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계
■ 전체 ■		(1,000)	7.8	92.2	100.0
성별	남자	(495)	9.6	90.4	100.0
	여자	(505)	6.1	93.9	100.0
연령	15-19세	(63)	6.2	93.8	100.0
	20대	(204)	8.9	91.1	100.0
	30대	(205)	9.8	90.2	100.0
	40대	(219)	4.4	95.6	100.0
	50대	(215)	10.1	89.9	100.0
	60-64세	(94)	5.3	94.7	100.0
지역	도심권	(56)	10.8	89.2	100.0
	동북권	(315)	7.9	92.1	100.0
	서북권	(123)	3.3	96.7	100.0
	서남권	(296)	7.8	92.2	100.0
	동남권	(210)	9.8	90.2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8.9	91.1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5.8	94.2	100.0
	대졸 이상	(649)	7.9	92.1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49.2	50.8	100.0
	자영업자	(51)	8.0	92.0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7.9	92.1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9.2	90.8	100.0
	사무직	(357)	8.7	91.3	100.0
	관리/전문직	(120)	9.8	90.2	100.0
	전업주부	(122)	5.7	94.3	100.0
	학생	(115)	4.3	95.7	100.0
	무직/은퇴/기타	(137)	7.9	92.1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15.8	84.2
100-199만원		(56)	10.7	89.3	100.0
200-299만원		(136)	8.7	91.3	100.0
300-399만원		(144)	6.9	93.1	100.0
400-499만원		(186)	5.4	94.6	100.0
500-599만원		(153)	5.8	94.2	100.0
600-699만원		(99)	7.1	92.9	100.0
700만원 이상		(201)	10.2	89.8	100.0
경제수준	상	(65)	13.7	86.3	100.0
	중	(702)	7.6	92.4	100.0
	하	(234)	6.8	93.2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7.4	92.6	100.0
	기혼	(545)	7.9	92.1	100.0
	기타	(36)	11.2	88.8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9.6	90.4	100.0
	보통	(267)	3.7	96.3	100.0
	좋지 않은 편	(75)	6.7	93.3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10.7	89.3	100.0
	보통	(369)	4.9	95.1	100.0
	좋지 않은 편	(143)	5.8	94.2	100.0

2. 블루터치 인지경로

문9-1] ‘블루터치’를 어떤 경로를 통해 듣거나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 경로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 3-5-2〉 블루터치 인지경로(복수응답)

(Base: 블루터치 인지자, N=78, 단위: %)



전체

- ▶ 블루터치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인지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홍보책자/팜플렛/유인물’ 및 ‘지하철과 버스 등 옥외광고’(각각 26.9%),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2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5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26.2%), 2013년에는 ‘홍보책자/팜플렛/유인물’(30.8%), 2011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25.7%), 2017년과 2019년에는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 블루터치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각각 35.1%, 5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응답자 특성별

▶ 블루터치 인지경로에 대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0.7%로, 기혼(61.4%) 등에서 비교적 높음.

〈표 3-5-2〉 블루터치 인지경로(복수응답)

(단위 : %)

Base=블루터치 인지자	사례수 (명)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책자/팸플렛/유인물	지하철과 버스 등 옥외광고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보도자료	라디오	기타
■ 전체 ■	(78)	50.7	26.9	26.9	22.5	16.2	8.8	6.4	1.3
성별									
남자	(48)	50.3	25.7	25.5	28.9	13.7	6.3	4.4	2.1
여자	(31)	51.3	28.8	29.0	12.7	20.2	12.7	9.5	0.0
연령									
15-19세	(4)	0.0	0.0	25.7	0.0	74.3	0.0	0.0	0.0
20대	(18)	44.5	28.9	33.8	37.9	10.9	0.0	16.8	0.0
30대	(20)	65.0	30.0	25.0	25.0	15.0	5.0	5.0	5.0
40대	(10)	39.7	20.4	10.0	18.9	20.0	10.0	10.0	0.0
50대	(22)	59.1	22.4	36.8	18.2	13.5	18.2	0.0	0.0
60-64세	(5)	40.0	60.0	0.0	0.0	0.0	20.0	0.0	0.0
지역									
도심권	(6)	67.0	36.3	69.3	30.7	0.0	16.5	16.5	16.5
동북권	(25)	52.0	24.0	28.3	28.0	12.0	4.0	3.9	0.0
서북권	(4)	75.0	0.0	50.0	25.0	0.0	0.0	0.0	0.0
서남권	(23)	55.8	30.0	25.7	21.2	14.1	17.1	4.2	0.0
동남권	(20)	33.7	29.4	9.6	14.4	31.6	4.7	10.1	0.0
학력									
고졸 이하	(19)	37.8	22.0	16.9	20.8	15.2	10.6	5.1	5.3
전문대학 졸업	(8)	62.5	49.8	37.2	36.8	0.0	24.9	0.0	0.0
대졸 이상	(51)	53.6	25.2	29.0	21.0	19.1	5.7	7.9	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1)	0.0	0.0	0.0	100.0	0.0	0.0	0.0	0.0
자영업자	(4)	48.3	24.5	24.5	0.0	23.8	24.5	51.7	24.5
판매/영업/서비스직	(5)	19.8	61.1	19.8	38.9	0.0	19.8	0.0	0.0
노무/운송/기능직	(3)	66.7	0.0	0.0	0.0	0.0	33.3	0.0	0.0
사무직	(31)	64.8	26.3	23.2	16.0	12.8	9.5	6.3	0.0
관리/전문직	(12)	58.1	16.8	33.9	32.7	16.4	0.0	0.0	0.0
전업주부	(7)	57.1	42.6	43.0	14.0	13.9	14.0	0.0	0.0
학생	(5)	40.3	20.1	60.4	40.3	20.1	0.0	19.5	0.0
무직/은퇴/기타	(11)	18.2	27.4	18.2	27.6	36.1	0.0	0.0	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	50.3	0.0	0.0	74.8	25.2	25.2	0.0	0.0
100-199만원	(6)	16.5	16.1	0.0	16.5	16.0	0.0	18.4	16.5
200-299만원	(12)	34.0	24.8	17.0	16.7	24.5	0.0	0.0	0.0
300-399만원	(10)	50.0	20.0	20.0	10.0	10.0	20.0	0.0	0.0
400-499만원	(10)	39.4	41.1	19.7	20.0	19.6	0.0	9.7	0.0
500-599만원	(9)	55.1	22.3	22.6	21.9	33.1	11.0	0.0	0.0
600-699만원	(7)	72.8	31.0	44.6	27.2	14.1	0.0	0.0	0.0
700만원 이상	(21)	66.7	33.5	48.3	23.5	4.7	14.2	14.2	0.0
경제수준									
상	(9)	54.4	35.1	22.6	31.9	10.8	11.3	22.2	0.0
중	(54)	51.9	27.9	31.8	22.1	14.7	7.3	5.7	0.0
하	(16)	44.3	18.8	12.7	18.8	24.4	12.7	0.0	6.3
혼인상태									
미혼	(31)	35.9	26.6	29.4	28.6	25.3	0.0	9.8	3.2
기혼	(43)	61.4	25.1	27.6	17.9	11.2	13.6	4.5	0.0
기타	(4)	50.3	49.7	0.0	25.2	0.0	25.2	0.0	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3)	51.6	30.1	28.5	24.6	15.3	7.8	6.4	1.6
보통	(10)	39.8	20.2	30.3	10.1	20.2	9.8	0.0	0.0
좋지 않은 편	(5)	60.4	0.0	0.0	20.1	20.1	20.1	19.5	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52)	53.3	31.0	28.9	26.3	14.3	9.5	5.6	1.9
보통	(18)	49.8	27.5	22.2	16.4	5.4	5.4	6.2	0.0
좋지 않은 편	(8)	36.3	0.0	24.2	12.1	51.9	12.1	11.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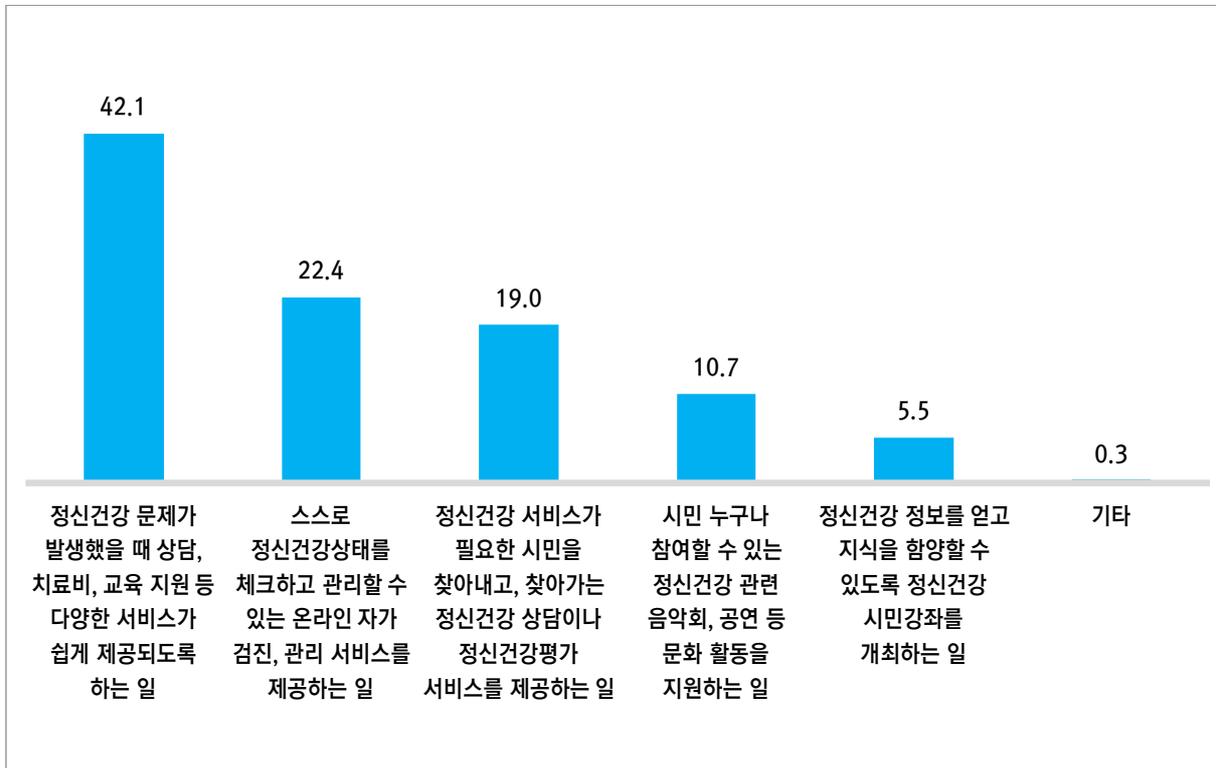
V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문10]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 3-6-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Base: 전체, N=1000, 단위: %)



🔍 전체

- ▶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 치료비,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쉽게 제공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42.1%로 가장 높음.

응답자 특성별

- ▶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 치료비,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쉽게 제공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2.1%로, 학력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음. 또한 여자(48.2%), 15-19세(58.1%), 서남권(46.2%), 학생(50.6%) 등에서 비교적 높음.

〈표 3-6-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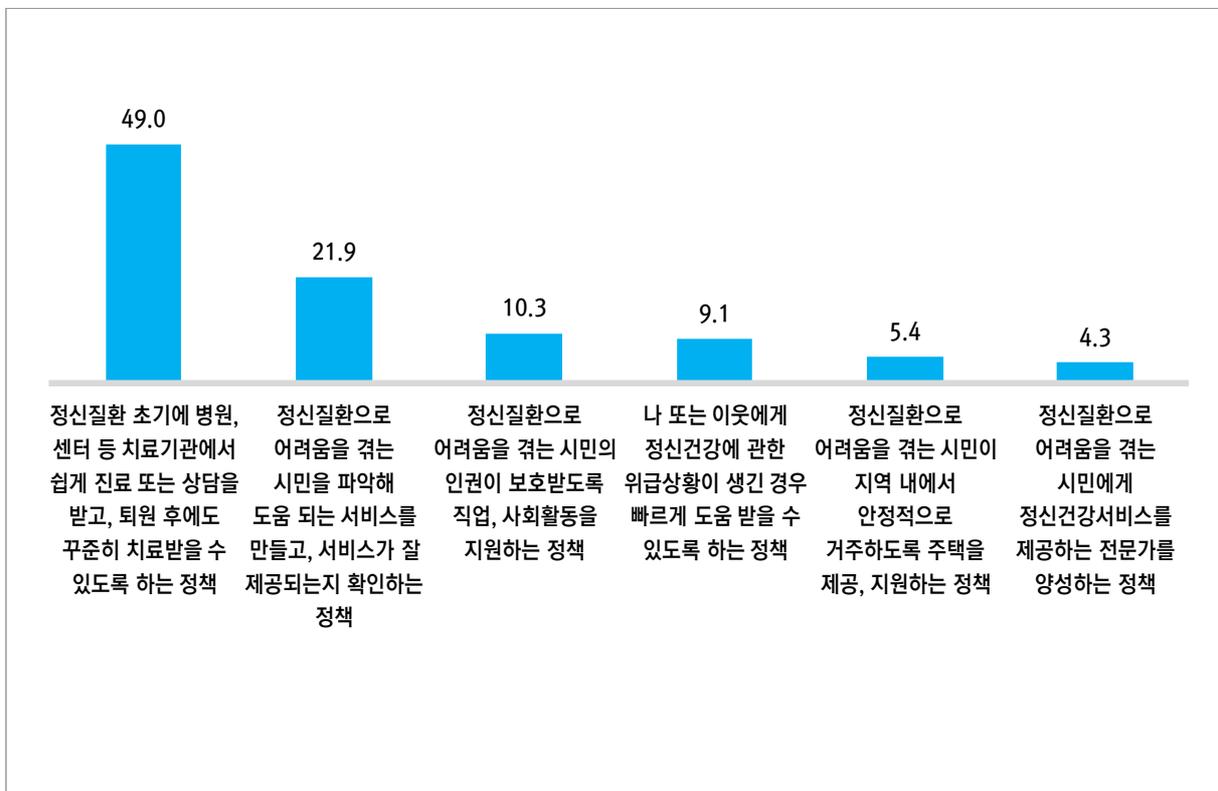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 치료비,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쉽게 제공되도록 하는 일	스스로 정신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 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이나 처방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음악회, 공연 등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일	정신건강 정보를 얻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시민강좌를 개최하는 일	기타	계
■ 전체 ■	(1,000)	42.1	22.4	19.0	10.7	5.5	0.3	100.0
성별								
남자	(495)	35.8	22.6	22.0	13.1	6.2	0.2	100.0
여자	(505)	48.2	22.2	16.1	8.3	4.9	0.4	100.0
연령								
15-19세	(63)	58.1	12.6	20.1	4.8	4.4	0.0	100.0
20대	(204)	38.7	27.9	18.2	10.1	4.0	1.0	100.0
30대	(205)	41.5	23.4	16.1	13.2	5.4	0.5	100.0
40대	(219)	40.5	23.7	16.1	13.4	6.2	0.0	100.0
50대	(215)	43.5	17.9	23.0	8.6	6.9	0.0	100.0
60-64세	(94)	40.1	22.0	24.0	8.5	5.3	0.0	100.0
지역								
도심권	(56)	30.3	29.4	21.0	12.1	7.1	0.0	100.0
동북권	(315)	39.2	23.8	20.2	11.4	5.1	0.3	100.0
서북권	(123)	42.3	28.5	13.0	12.2	4.1	0.0	100.0
서남권	(296)	46.2	17.7	21.3	9.6	4.9	0.3	100.0
동남권	(210)	43.5	21.6	17.0	9.8	7.6	0.5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45.6	16.3	20.4	12.6	4.7	0.5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43.6	21.7	19.5	11.6	3.6	0.0	100.0
대졸 이상	(649)	40.6	24.6	18.5	9.8	6.2	0.3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49.2	50.8	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38.5	17.4	23.1	13.3	7.6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39.7	23.1	18.4	11.0	6.2	1.6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39.4	18.3	21.1	18.2	3.1	0.0	100.0
사무직	(357)	39.8	24.5	16.4	12.3	6.9	0.0	100.0
관리/전문직	(120)	35.5	24.7	24.9	9.9	4.9	0.0	100.0
전업주부	(122)	47.3	22.8	17.8	7.2	4.9	0.0	100.0
학생	(115)	50.6	18.2	16.4	11.5	3.3	0.0	100.0
무직/은퇴/기타	(137)	45.4	20.3	21.9	6.5	4.5	1.5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44.5	16.0	11.9	11.7	12.0	4.0	100.0
100-199만원	(56)	38.4	23.7	29.2	5.3	3.4	0.0	100.0
200-299만원	(136)	41.4	24.3	15.7	12.7	5.9	0.0	100.0
300-399만원	(144)	45.4	18.7	17.3	16.6	2.0	0.0	100.0
400-499만원	(186)	39.4	21.0	21.9	10.2	6.9	0.5	100.0
500-599만원	(153)	37.2	27.7	20.4	11.5	2.6	0.7	100.0
600-699만원	(99)	47.0	21.9	17.0	4.9	9.1	0.0	100.0
700만원 이상	(201)	44.5	21.8	17.8	9.0	6.9	0.0	100.0
경제수준								
상	(65)	40.1	24.2	17.0	11.1	7.6	0.0	100.0
중	(702)	41.3	21.9	19.4	11.3	5.8	0.3	100.0
하	(234)	45.0	23.5	18.3	8.5	4.2	0.4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43.0	23.8	17.1	10.6	4.7	0.7	100.0
기혼	(545)	41.4	21.7	19.7	10.8	6.3	0.0	100.0
기타	(36)	41.4	16.7	30.7	8.4	2.8	0.0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39.1	23.3	21.2	10.3	6.2	0.0	100.0
보통	(267)	46.3	21.6	15.3	11.6	4.1	1.1	100.0
좋지 않은 편	(75)	53.2	17.4	13.3	10.7	5.3	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34.9	23.8	23.2	10.6	7.5	0.0	100.0
보통	(369)	46.5	23.6	14.9	11.3	3.2	0.5	100.0
좋지 않은 편	(143)	55.2	14.7	15.5	9.0	4.9	0.7	100.0

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문11]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신질환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6-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정신질환 초기에 병원, 센터 등 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 또는 상담을 받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응답 비율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정신질환 초기에 병원, 센터 등 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 또는 상담을 받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9.0%로, 여자(58.4%), 40대(53.9%), 동북권(50.3%), 전문대학 졸업(58.7%), 전업주부(59.5%),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56.3%), 기혼(52.7%) 등에서 높음.

〈표 3-6-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정신질환 초기에 병원, 센터 등 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 또는 상담을 받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파악해 도움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정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인권이 보호받도록 직업,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나 또는 이웃에게 정신건강에 관한 위급상황이 생긴 경우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주택을 제공, 지원하는 정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	계
■ 전체 ■	(1,000)	49.0	21.9	10.3	9.1	5.4	4.3	100.0
성별								
남자	(495)	39.4	25.1	13.1	10.3	8.0	4.0	100.0
여자	(505)	58.4	18.7	7.6	7.9	2.9	4.5	100.0
연령								
15-19세	(63)	39.7	22.4	14.8	13.7	4.6	5.0	100.0
20대	(204)	45.1	21.7	14.5	7.4	5.5	5.8	100.0
30대	(205)	48.3	19.5	9.8	9.8	8.8	3.9	100.0
40대	(219)	53.9	16.2	8.9	9.8	5.2	5.9	100.0
50대	(215)	51.4	24.7	8.8	9.6	3.6	1.8	100.0
60-64세	(94)	48.6	33.7	6.1	5.3	3.2	3.1	100.0
지역								
도심권	(56)	45.2	27.0	10.9	6.6	10.3	0.0	100.0
동북권	(315)	50.3	20.5	8.9	9.5	5.4	5.4	100.0
서북권	(123)	48.0	17.9	10.6	12.2	5.7	5.7	100.0
서남권	(296)	48.9	22.1	10.1	9.3	5.3	4.3	100.0
동남권	(210)	48.9	24.6	12.4	7.1	4.3	2.8	100.0
학력								
고졸 이하	(214)	43.8	23.4	11.8	13.7	5.1	2.3	100.0
전문대학 졸업	(137)	58.7	15.9	9.3	10.2	3.1	2.9	100.0
대졸 이상	(649)	48.7	22.6	10.0	7.4	6.1	5.2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50.8	49.2	0.0	0.0	0.0	100.0
자영업자	(51)	44.5	25.1	11.3	19.1	0.0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4)	32.4	22.9	24.8	10.8	4.7	4.5	100.0
노무/운송/기능직	(33)	48.2	12.2	9.2	18.3	9.1	3.1	100.0
사무직	(357)	52.0	17.6	11.0	6.1	8.6	4.7	100.0
관리/전문직	(120)	47.0	27.4	7.4	9.9	3.3	5.0	100.0
전업주부	(122)	59.5	23.6	4.0	6.5	4.0	2.4	100.0
학생	(115)	46.4	21.9	12.8	9.3	3.4	6.2	100.0
무직/은퇴/기타	(137)	46.4	26.9	7.1	11.7	3.6	4.3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	33.8	22.9	7.9	23.5	11.8	0.0	100.0
100-199만원	(56)	41.8	24.7	14.6	15.3	1.8	1.8	100.0
200-299만원	(136)	45.6	21.3	12.5	10.9	6.0	3.8	100.0
300-399만원	(144)	50.1	21.0	6.2	12.4	6.2	4.1	100.0
400-499만원	(186)	46.9	24.3	10.1	6.4	5.8	6.4	100.0
500-599만원	(153)	47.8	22.1	11.3	7.8	6.5	4.6	100.0
600-699만원	(99)	51.1	22.7	10.9	9.5	2.8	3.0	100.0
700만원 이상	(201)	56.3	19.2	9.9	5.3	4.9	4.4	100.0
경제수준								
상	(65)	38.2	29.3	12.6	10.7	4.6	4.5	100.0
중	(702)	52.1	21.5	10.0	7.0	5.1	4.2	100.0
하	(234)	42.7	20.8	10.5	14.9	6.8	4.3	100.0
혼인상태								
미혼	(419)	45.7	20.8	12.8	10.4	5.7	4.5	100.0
기혼	(545)	52.7	22.1	8.1	7.4	5.4	4.2	100.0
기타	(36)	30.8	30.3	14.0	19.5	2.7	2.7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58)	46.6	25.7	10.7	8.6	5.3	3.2	100.0
보통	(267)	57.1	13.4	9.9	8.5	5.9	5.2	100.0
좋지 않은 편	(75)	41.7	18.6	8.2	15.6	5.3	10.6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89)	43.4	27.3	11.4	8.2	6.5	3.2	100.0
보통	(369)	55.1	16.6	10.1	9.0	4.8	4.4	100.0
좋지 않은 편	(143)	52.7	16.9	7.0	12.3	3.5	7.6	100.0